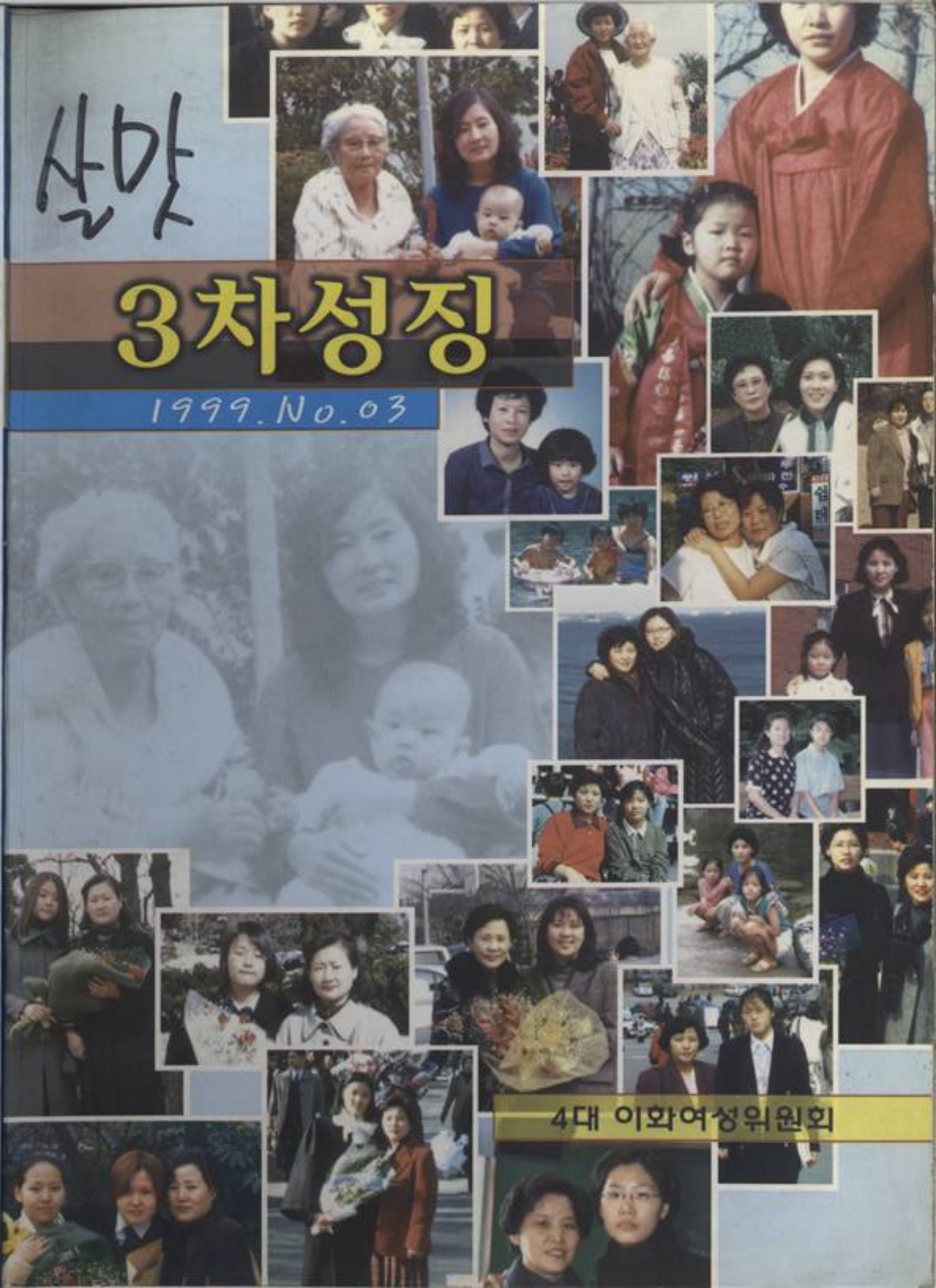


삼마

3차성징

1999.No.03



4대 이화여성위원회



3차성징 No.03

퍼낸곳 / 이화여성위원회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360-3562 (이화여성위원회)

발행일 / 1999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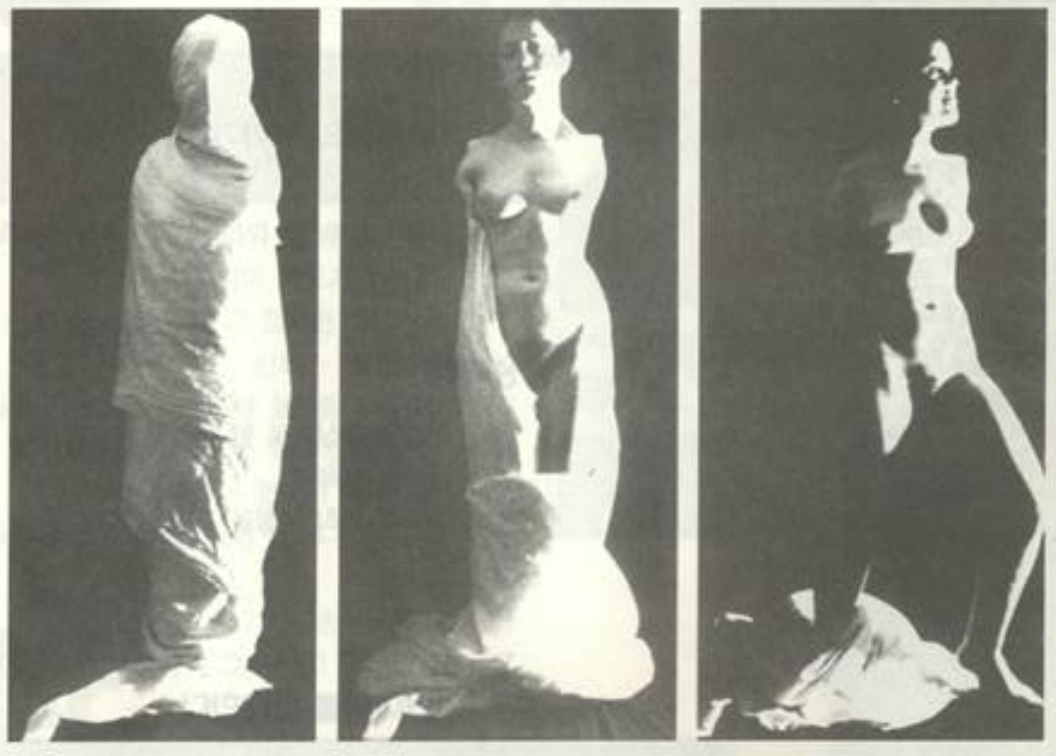
디자인 / 젊은일꾼 청년

(TEL 2277-8334, 8335, 8623)

3차성징

1999 No. 03

3차성징은 이화인 여러분 바로 곁에서 호흡하고 싶은 이화여성위원회의 큰 속삭임입니다. 1년에 한 번, 여성주의적인 담론을 함께 고민하고 이화여성위원회가 해 온 활동들을 공유하기 위해 3차성징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3차성징이란?
동물 중에서도 여성이라고 이름지어진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정후로,
세상을 그들(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특징을 보인다.
- 비슷한 말 : feminist로 다시 태어나기.

4대 이화 여성위원회

여성노동

- 8 | 신규 여성 실업 문제-그러나 우리도 일하고 싶다
- 11 |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평등의 세상으로 간다 - 메이데이 기획단 여/생
- 13 | 일상 속의 차별 드러내기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 16 | 여성,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가로막는 군가산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18 | 이제 여성의 목소리를 모아 - 99년, 여성독자노조의 출발

여위를 소개합니다



표지의 사진은
총회 '엄마와 나'를 기획하며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살은 것입니다.

새내기들의 이야기

성폭력

- 26 | 이화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 28 | 온라인 성폭력
- 33 | 성폭력 학칙 제정을 주장합니다

미인대회를 반대한다

매매춘

- 37 | 달아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고리, 매매춘
- 41 | 기활을 다녀와서

일본군 성노예

- 다시,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말한다 -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학생법정 | 45
- 수요시위, 그리고 수요시위 교양학교 | 48

50 99 여성연대한판

52 통신소리통

54 여성위원회 활동일지

총회기획 - 엄마와 나

- 기획글 : 총회기획 '엄마와 나'를 고민하며 | 56
- 우리 엄마 계모가 아닐까? | 57
- 모성이데올로기, 그 철저한 시나리오,
- 만화 - 엄마의 꿈 | 60
- 엄마와 나의 자리찾기 - 호주제 철폐를 부장하며 | 62
- 부모성 함께쓰기, 엄마성 함께쓰기 | 65
- 가려진 족보 - 현대사 속의 여성 | 66
- 잊혀진 족보 - 신으로서의 어머니 여성신화 | 69
- 토막글 | 72
- 가사노동에 대하여 | 75
- 엄마처럼 살지 않기 - 그 어렵고 험난한 길 | 77

사진으로 보는 문화제

4회페미니즘

올해 3월에도 이화대에 여성주의의 대열을 거는 '페미니즘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번 4회 문화제의 DM으로 멋진 DM과요, 각자 가진 물체에 새겨진 기호에 의미를 찾아내고 여성주의 문화를 풍요로운 지평이 되도록 열망해 기대합니다 ~



자~! 첫페미니즘 가락제였을 여학생들이 즐겁게 노는 자리! 여학생 라디오의 공연, 역점에서 벗어난 내용의 페미니즘, 알수없는의 문화제 내용을 담은 페미니즘 동화...이 펼쳐지는 자리였습니다.



첫페미니즘
「너, 페미니즘 무엇이지?」
라는 제목으로 '나, 여성, 일'의 중요한 의미를 그리는 시간을 있었습니다. 큰 벽에 그려진 페미니즘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페미니즘
「페미니즘 나의 삶-가치중 여성, 경험에 있습니다. '이바의 여인들'이라는 다국어에서부터 보고 가치중 경험에서 들을려는 경험은 나의 가변을 들었지요





남자애들은
「성폭력 - 양친지대는 없다」는
이름으로, 거대 성폭력을 짓는
「전두지대」에 말한다. 이따들
계속으로 한 권도, 그대들 같은
성폭력 배다른을 사형시키요
이제, 성폭력 사형에 관한
지침을 세워서 강요하
십시오.



다섯째날은
「지침에 대한 여성들
선과 - 강요한 이들을
중심으로 한 강요와
투쟁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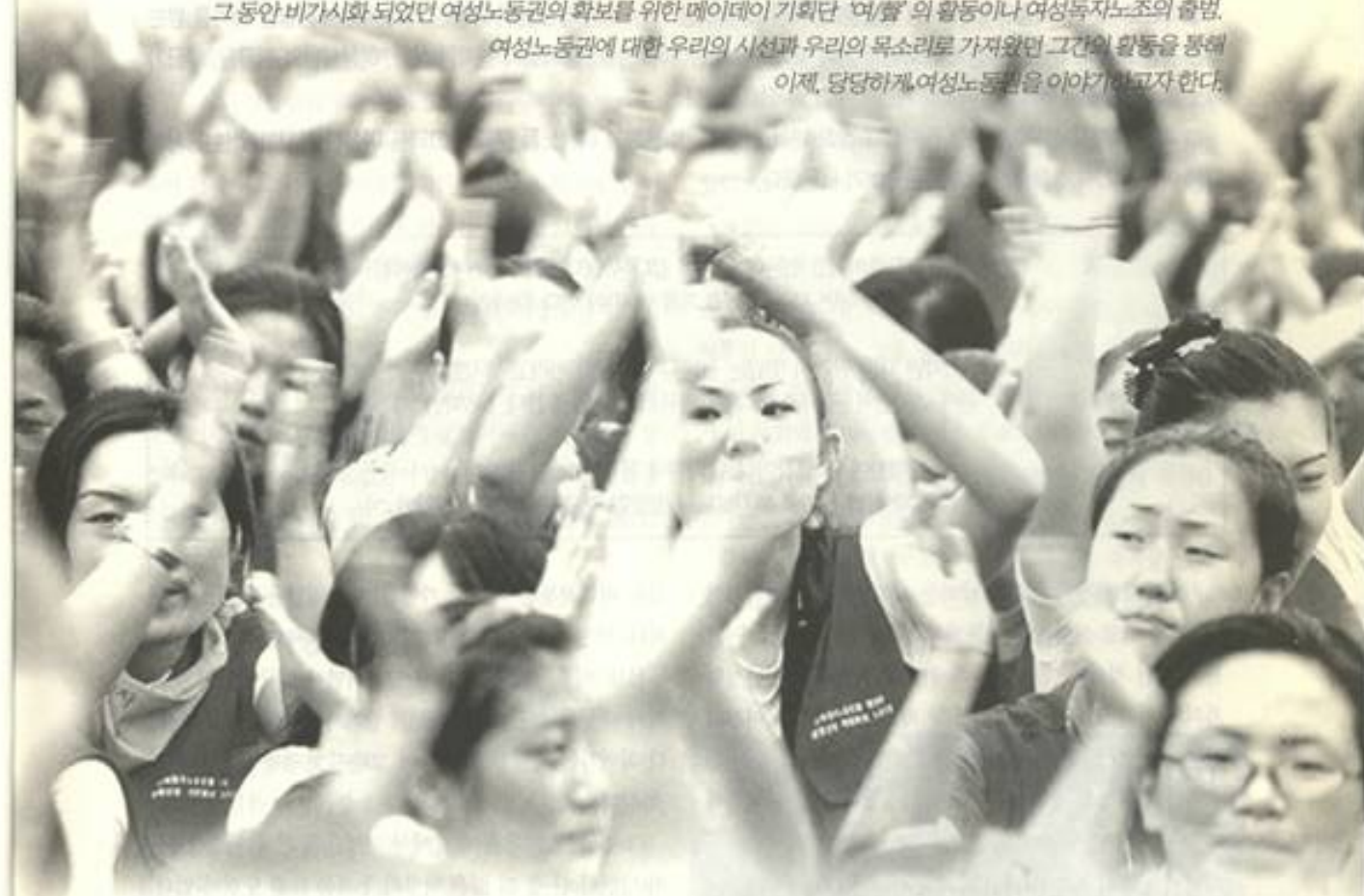
그때에도
권한 앞 줄에서 「다섯의
현상은 어떻게? - 성폭력
관련국에 조여합니다. 관련
이들의 투쟁이 성지
되었습니다.



반군법률관과
노동권 시위
시위에서
「여성노동, 다시 생각하
고하길
- 다섯의
관련국에
관련국에
있습니다.

여성노동

여성들은 언제나 일해왔다.
임금노동시장에서 갖은 차별을 감수하고 일해왔으며
성별분업이데올로기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가사노동을 전담해 왔다.
그러나 언제나 여성들은 일할 권리가 빼앗기거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우리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인 신규실업 문제와 군가산제,
그 동안 비가시화되었던 여성노동권의 확보를 위한 메이데이 기획단 '여/聲'의 활동이나 여성독자노조의 출범,
여성노동권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소리로 가져왔던 그간의 활동을 통해
이제, 당당하게 여성노동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신규여성실업문제 - 그러나 우리도 일하고 싶다
2.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평등의 세상으로 간다 - 메이데이 기획단 '여/聲'
3. 일상 속의 차별 드러내기 -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4. 군가산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5. 이제, 여성의 목소리를 모아 - 99년 여성독자노조의 출발



그러나, 우리도 일하고 싶다.

정리하고 1순위, 비정규직화, 여성 실업문제, 직장 내 성희롱 여성의 노동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한 작전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심각한 상황, 여성실업의 위급함, 무급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들... 우리에게서는 무수한 과제들이 있다.

그 과제 속에서 신규여성실업 문제를 고집해 내려 한 것은 이 문제가 여성노동 문제의 고리를 여실히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른 아닌 우리에게 절실히 다가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군대에 갔다온 남자와 7점이 차이난다.
그걸 채우려면 자격증을 몇 개를 더 따야 한다 (96학번 사).

1학년 때는 당언이 맛있는 전문직에 종사할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4학년이 된 지금 어디라도 취직되었으면 좋겠다. (96학번 지)

대학원에 갈 생각이다. 대학원에 꼭 가고 싶다가 보다는
요즘 같은 때 취업 못하고 눈치보느니 뭣할 것 같아서이다. (95학번 기)

이화에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4학년들이 한 이야기가 있다. 이제 결코 실업이라는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7월 30일자 한겨레 신문에는 청년실업자의 수치가 90년대 초에 비해 두 배가 증가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수가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다면 그 교집합에

여성의 노동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한 작전이다.

있는 여대생들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떤 곳도 여대생이 갈 곳은 없다.

IMF 이후 실업자가 대량 양산되면서 신규실업의 문제 역시 대두되었다. 그리고 IMF 한파가 불어닥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역시 상황이 그다지 호전될 기미는 없는 것 같다.

그 신규실업의 문제 속에서 여성들은 언제나 그랬듯 이 당연한 한 층 더 깊은 억압의 두께를 느낄 수밖에 없다. 사회의 가부장적인 시선은 신규여성실업자들에게 호락호락하게 기회를 내주지 않는다. 이는 총체적인 음모인 것이다.

신규여성실업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여성실업의 문제 중의 하나가 통계 상에 여성실업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실업율을 계산하는 방식의 불합리함 때문이다. 현재 실업의 정의는 '경제활동인구 중 일을 할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조사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실업의 의미를 다 포함하지 못하며 주부, 그리고 실망실업자 등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신규여성실업자들을 생각해 보자. 여성의 경우 취업의 문이 더욱 좁고 남성에게 비해 취직의 가능성이 적기에 몇 번의 구직활동 속에서 포기하게 되기가 쉬운데 그러한 경우 실업자가 실망실업자가 되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만다. 일자리가 주어진다든 당장 달려갈 여성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것이다.

결국 신규여성실업자들은 실망실업자가 되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되며 그래서 실업율에 포함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실업율이 신규여성실업의 문제가 심각성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할 때, 신규여성실업에 대한 대책들은 수립될 수 없다.

여성들은 가정으로 돌아가라...?

IMF이후 여성들은 더욱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억압의 무게를 감당해야만 했다. 사회는 남성가장이 생계부양자이며 그러한 남성가장에게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가족임금이데올로기 하에 여성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려고 애썼다. 그 속에서 여성은 정리하고 1순위로 지목되었고 한 축으로는 국가에서 담당해야 할 복지의 문제들을 여성의 의무로 되돌리면서 여성의 노동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이중의 억압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여대생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는 여대생들에게 가족임금이데올로기를 발동시키면서

사회적 가부장적인 시선은 신규여성실업자들에게 호락호락하게 기회를 내주지 않는다. 이는 총체적인 음모인 것이다.

임금노동시장의 진출을 방해한다. 여성에게 일자리는 결혼 전의 자아실현을 위한 것 정도로만 사고하고 가정이 여성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시선은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내주려 하지 않으며 '너희는 결혼이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결혼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여성이 가정에서 무급의 가사노동을 감수해야 하고 갖가지 억압의 상태에 놓여야 함을 논외로 하더라도 결혼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IMF 이후의 임금 감소, 고용 불안 속에서 실제로 한 남성 생계부양자가 한 가정을 부양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게다가 이 사회에서 여성들이 결혼 후에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 때는 기혼 여성이라는 '불리한' 이름이 덧붙여 취업을 한다는 것은 더욱 힘들어진다.

결국 사회에서 생계부양자도 아닌 여성은 자격증을 따고 학점을 높이려고 애써도 신규여성실업자라는 딱지가 붙기에 '유리한' (?) 상황에 놓이고 마는 것이다.



주 1) 신규실업이란 임금 노동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취직하지 못하고 실업 상태가 되는 상태를 뜻한다. 즉,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취직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인턴제 혹은 인스턴트? 정부의 대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얼마전에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인턴사원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인스턴트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내걸었다. 신규실업 문제에 대한 지금의 정부대책을 현실적으로 비판한 말이 아닌가 한다.

신규실업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인턴사원제, 공공근로 정도이다. 그리고 당장 먹고살아야 할 졸업생들은 그러한 제도 속에서도 포함되고자 한다.

그러나 인턴제나 공공근로의 경우 6개월 정도의 단기간 계약제이다. 그러기에 지속적인 취업을 약속받을 수 없는

여성의 일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가부장적인 시선 속에서 여성의 일할 권리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은 노동강도로 일을 하면서도 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하나의 노동 착취를 낳는 결과로 작용한다. 실제로 기업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사원들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거나 정규직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인턴사원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식으로 인턴사원제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리고 인턴사원, 공공근로가 일시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한다면 이후의 생산적인 기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동기간을 자신의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기간 사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과는 상관없는 단순노동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이와 같은 대책으로는 신규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대책의 수혜자가 늘어나야 하며 인턴제나 공공근로와 같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고용창출방안이 생겨나야 한다. 그리고 신규실업자들 중에도 일차적인 희생을 당하고 있으며 인턴사원, 공공근로 등에서도 성별 분업적인 흐름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는 신규여성실업자들에게 대한 체계적인 대책방안이 생겨나야 할 것이다.

절망을 거부하기 위하여.

신규여성실업의 문제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IMF 이후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방식의 불합리한 구조조정의 결과이며 여성의 일할 권리와 생존권을 빼앗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의 결과이다. 그러기에 그 구조적인 모순들에 맞서고 당당함을 찾기 이전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다. 일시적이고 비생산적인 정부의 실업대책, 여성들을 사무실의 꽃으로 사고하고 차별채용을 일삼는 기업, 그리고 여성의 일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가부장적인 시선 속에서 여성의 일할 권리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절망을 거부하기 위 / 하 / 여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평등의 세상으로 간다 메이데이 기획단 여 / 랑

신규여성실업문제 해결과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동절 기획단 여/랑은 갑갑하고 분노스러운 현실속에서의 필연적 요구에 의해 기획되었다. 이화여성위원회를 포함한 20여개의 대학 내 여성운동 단위가 함께 우리의 요구들을 가지고 4.30과 메이데이에 결집했다. 이는 물려진 여성의 노동권을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평등의 세상'으로 가기 위한 시도였다.

"가부장제가 없었다면 노동자계급은
아니가 되어 자본주의에 대항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부장적 사회관계는
한 부분(남성)으로 하여금 다른 부분(여성)의 희생을 대가로 하여
살아남도록 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을 분할시켜 왔다."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다시 비정규직으로

구제금융 이후 정권과 기업은 일차적 희생자로 여성을 지목하였다. 여성은 호황기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여성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착취받았으며, 불황기에는 '여성'은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므로 우선 해고되어도 좋다. '여성에게는 결혼이라는 대안이 있지 않은가'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노동 시장 밖으로 내몰려 왔다. 경제위기 하에서, 또 다시 자본과 가부장제는 여성을 배제(여성우선 해고, 여성중심직종 퇴출, 신규 여성

실업문제 은폐)함으로써 막대한 실업을 극복해보려 하고 있다. 여성을 본래의 자리(?)라는 가정으로 몰아넣는 현 상황에서 여성은 재생산 노동의 전담자, 그리고 무차별한 구조조정에 의해 생계부양자 일인이 가족전체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임금 노동, 비정규직 노동의 전담자로 이중 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직면하게 될 '신규여성실업'의 문제는 우리를 더욱 갑갑하게 하고 있다.

일하지 않는,
투쟁하지 않는 여성은 없다!

주 1) 각주 - 헤이디 허트만 '여성해방이론의 정정'
2) 각주 - 이 문제는 앞의 글 '그러나, 우리도 알고 있다'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극단에 몰린 여성노동권의 문제는 기존 노동운동 세력에서조차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의 노동절 포스터³⁾는 여성을 노동하는, 투쟁하는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가부장성을 극단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남성노동자들의 일자리 확보는 여성노동자의 희생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조장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더없이 유용한 수단이다. 결국 노동 운동은 여성노동자를 배제함으로써 자본주의체제 외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기업의 기만적 의도와 정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메이데이 기획단 여/람은 고용시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노동과 투쟁의 주체로서의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을 뒷바라지하는 부차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을 그린 민주노총의 포스터에, 노동조합의 가부장성에 문제제기 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왜 4.30, 메이데이에서

경제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는 여성 노동의 현실은 자본

과 정권의 노동착취에 대항하는 운동 속에서도 소외되어만 왔다. 기존의 노동 운동 속에서조차 여성들은 언제나 소수여야 했고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부분으로 취급되거나 배제되어야 했다. 그러기에 그동안 묻혀졌던 여성노동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화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20여개의 여성운동단위들이 연대하여 메이데이 기획단 여/람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노동운동 세력의 총집결이라는 '메이데이'에서, 대학내 노동운동의 큰 축인 '4.30'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은폐되고 있는 여성 노동권의 문제를 알려내고 여성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존속 가능하게 하는지를 알려 내고자 함이었다. 즉 노동권 확보라는 것은 여성노동권 확보와 함께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내고자 했던 것이다.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요구는 아직 사회속에서 생소하게 일한다. 우리는 4.30과 메이데이에서도 우리의 요구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아들을 보았다. (실제로 '군가산계 폐지'라는 여/성의 요구를 담은 PC가 찢기는 일도 있었다.) 하기에 아직까지 여성 노동권 확보는 여성에 의한 독자적 문제제기의 흐름속에서 가능하다는 전제아래 우리의 요구를 4.30, 메이데이에 알려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에 대한 그들의 비판적 지지와 발전적 연대를 모색하고자 기획된 것이었다.



주 3) 포스터의 내용은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며 나가는 남성 노동자의 모습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배후에서 이따고 안고 있는 여성의 희미하고 축소된 모습을 배경으로 "당신만이 희망입니다"라는 멘트가 삽입되어 있다.

일상 속의 차별 드러내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홍익대, 서울대의 경우 미술대학 모집시 여남의 비율을 1:1로 정한다.¹⁾ 미술계열의 경우 여학생들이 집중되었있는 영역으로 경쟁률 면에서도 여학생 응시자들간의 경쟁률이 훨씬 높고 선발의 객관적 근거인 성적 또한 여학생 응시자들이 월등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남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여성의 비율이 높은 분야는 발전할 수 없으며 남성이 주도하는 영역만이 전문성을 가질수 있다는 전제하에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적인 제도인 것이다. (남성 집중 영역인 공대의 경우 선발시 여남의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 영역에 남성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한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성차별적 제도에 분노하고 문제제기하는 것과 함께 실제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들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차별금지법')은 전 사회 영역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간 여성관련정책의 차별금지 영역이 '고용'부분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과 달리, 신설된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는 고용, 교육, 복지 등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된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차별 시정 대상 분야를 민간업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는 것은 본 법이 기존의 정책보다 전일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상에서의 무수한 차별들 - '차별금지법'의 적용내용

고용²⁾에서...

- 여성 채용시에만 요구되는 조건들 - 키: ... 이상,

남성 집중 영역인 공대의 경우 선발시 여남의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 영역에 남성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한가!

몸무게: ... 이하, 용모단정 - 등은 객관적 선발 근거와 상관없음에도 항상 따라붙는 조건들이다.

- 동일한 자격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다른 형태로 채용하거나 채용방법, 경로 등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비정규직 형태로, 남성은 공채, 여성은 개인적 루트를 통해(이는 실제로 여성 채용 경로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 사용자,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집단,

주 1) 장학위 서울대의 경우 여남의 비율을 1:1로 정하고 홍대의 경우에는 여남의 비율을 40:40으로 전체 100%중 80%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20%는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1장2조

3) '고용'이라 함은 공공기관과 모든 사업장의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계약관계를 포함한다.



모집의외인 또는 고객이 남성을 선호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여성채용을 거부한다.

- 모집, 채용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있어서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대기업 취업 바란회에서 여성의 출입을 금지한 적이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남녀공학의 경우 학내 취업정보실에서조차 남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교육⁴⁾에서...

- 해외연수, 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특정성을 배제한다.
- 여학교의 교훈은 '정숙...', 남학교의 교훈은 '적극적...',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여자가 무슨 공부야, 여자는 시집이나 가면 되지', '현모양처야 말로 여자의 미덕이지'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한다.
- 성별에 따라 활동기회를 제한, 활동내용을 구분하거나 교과선택기회, 진로선택범위 등을 제한한다.
- 성별로 교육대상 인원을 배정하거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

- 근로자에 대한 생활 보조적, 후생적 급품의 지급 등 근로자 복지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둔다.
-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자동차 할부판매 등 기타 금융제공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둔다.

- 공공기관 또는 사용자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둔다.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

- 공공사업의 수혜자의 선정기준 등을 정할 때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둔다.
-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둔다.

성희롱의 금지

- 육체적 행위-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안마, 애무를 강요한다.
- 언어적 행위-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 시각적 행위-외설적인 사진, 음란 출판물 등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주목할 만한 것은 성희롱 금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직장, 학교 등 일상에서 여성이 당하는 성폭력이 법률에 명시되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희롱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성희롱은 피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어마지마한 성적·정신적 환경과 맥락 하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성희롱의 여부는 피해자의 경험, 느낌에 의해 판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외 여성 차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중매체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해자에게 억압적인 성차별적 환경과 맥락 하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성희롱의 여부는 피해자의 경험, 느낌에 의해 판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외 여성 차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중매체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신고 방법과 전담기구의 활동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사무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성특위'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된 사례가 '남녀차별'이라고 판단되면 신고 대상 기관에 대해 차별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여성특위'의 자율적 판단하에 적권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남녀차별 조정, 시정권고, 고발, 차별적 법령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언론에 부당사례와 가해기관에 대한 고발 기사를 게재할 수 있다), 차별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 지침 수립, 보급 등의 활동이 '여성특위'의 기능이다.

그러나 '여성특위'가 어디까지나 '순수한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가 존재한다. 차별금지법 원안에서는 '여성특위'에 '시정 명령권'이라는 준사법권을 부여



함으로써 차별행태에 대한 조사 뿐 아니라 시정, 법률적 처벌까지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법률 통과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되고 '조사 요구', '시정 권고'에 권한이 한정됨으로써 사실상의 준사법권 확보는 무산되었다. 이 밖에도 차별적 행태에 관한 신고자격을 피해자 개인에게만 한정함으로써, 공익적 차원에서 남녀차별 개선운동을 벌여온 여성운동단체는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성차별이 가지는 특성-(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권력관계, 피해자의 성폭력 경험을 공론화하기 어려운 사회, 제도적 억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개인 뿐 아니라 비영리 사회단체에도 신고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남은 과제임을 의미한다.

'차별금지법'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 불편함 등을 '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신고하는 자발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남녀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분야를 사회 전반적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점, 성희롱 금지를 명문화했다는 점, 미약하나마 처벌규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완전하고 실제적인 '준사법권' 획득, 신고 자격의 확대, 대중매체 관련 조항의 철폐 등 본 법의 한계적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 불편함 등을 '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신고하는 자발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주 4) '교육'은 초·중·고등 교육 뿐 아니라 사회기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훈련교육 까지 포함한다)

주 5) 각주 - '여성특위' (Tel: 3477-4076)에 전화를 걸면 Fax를 통해 남녀차별 사례 신고 신청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여성,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가로막는

군가산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98년 이화여성위원회에서는 군가산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었다. 일주일간 테이블을 설치하고 이화인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이화인들이 군가산제의 불합리함에 대해 분개했고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했다. 그러나 군가산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여성과 장애인들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제,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가로막는 군가산제는 폐/지/되/어/야/하/는/다.

군가산제에 대해 알고 싶은 몇 가지를 알아봅시다.

Q 군가산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군가산제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에게 각종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가산제는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모든 직급,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채용시험시 5% ~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형태입니다.

Q 5%-3%가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열심히 공부하면 극복할 수 있지 않나요?

A 3%~5%라는 가산점은 과목합산 점수로 계산하면 50점에서 30점의 차이가 날 수 있는 큰 점수입니다. 따라서 불과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한

불과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사실상 여성, 장애인, 군미필자의 취업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상황에서 사실상 여성, 장애인, 군미필자의 취업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98년 5월의 철도 기능직 시험에서는 가산점에 의해 합격선이 100 점 만점에 100.5점이 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성은 필기 시험에서 만점을 맞아야도 취직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다가 자격증을 따고 갖은 노력을 해서 몇몇의 여성들이 취업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군가산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Q 하지만 제대군인들에게 보상을 해주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군가산제 폐지가 곧 제대군인에 대한 일체의 보상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 결과적으로 여성, 장애인, 군미필자의 취업기회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채용상에 있어 많은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 장애인들에게 군가산제는 제도적으로까지 불리한 출발점을 상징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Q 지금까지 군가산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A 군가산제에 대한 여러 여성단체 등에 의해 문제제기와 활동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에는 6인으로 구성된 여성, 장애인에 의해 헌법소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심리조차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들은 각종 채용시험에서 계속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99년 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인 실업자 연맹, 그리고 이화여성위원회

를 비롯한 대학단위는 군가산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연석회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 9급 공무원 시험, 6월 7급 공무원 시험 당일엔 시험장 앞에서 군가산제 폐지를 위한 집회를 진행하였으며 고발장구를 마련하여 활동중입니다.

군가산제 폐지가 곧 제대군인에 대한 일체의 보상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 결과적으로 여성, 장애인, 군미필자의 취업기회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들이 모여야만
군가산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피해 고발 및 시업 제안은,

참세상에서 'go 군가산제' 하시거나
나우누리에서 '민우노동' 으로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여성의 목소리를 모아

99년. 여성독자노조의 출발

게다가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거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입이 불가능하거나 노조가 기업내에 존재하지도 않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거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입이 불가능하거나 노조가 기업내에 존재하지도 않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99년 1월 11일 서울여성노조와 서울지역여성노조가 설립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실업자를 포함한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독자노조의 설립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는 여성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기 어렵게 하는 억압적인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조직화되고 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현재 여성노조는 99년 1월에 탄생한 서울여성노조 외에도 서울지역여성노조를 비롯한 8개의 지역노조가 결성되었고 전국여성노동조합추진위원회에서 8월 29일 전국여성노조를 발족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제기할 수 있는 여성독자노조는 여성들에게 많은 의미와 가능성을 던져준다고 생각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서울 여성노조와 인터뷰를 가져보았다.

서울 여성노조란 어떠한 곳인가요?

서울 여성노조는 다양한 방식으로 억압당하고 있으며 고용상의 불안정, 차별 등을 당하고 있는 여성노동자, 실업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조이며 법외 노조로 99년 1월 11일 출범했습니다. 직종에 상관없이, 그리고 실업자, 노동자에 대한 구분 없이 누구나 서울여성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상이나 체계에 있어 다른 노조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노조가 갖고 있는 틀거리를 지니고 있지만 여성주의적인 방식으로 꾸려나가고자 하며 수평적인 구조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즉, 남성적이고 일방적인 회의 문화가 아니라 여성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의사결정, 사업진행을 모든 노조원이 함께 하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소모임 등을 통해서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인 참

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여성문제를 풀어가는 조직들이니만큼 조합원만의 노조가 아니라 노동자, 학생 등 모두에게 열려있는 노조입니다.

법외노조로 출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조에 실업자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필증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외노조는 필증받은 절차상의 문제이지 불법노조나 적법노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여노가 노조에 실업자를 포함해야 함은 기본적인 원칙의 문제입니다. 기업내 노조가 아닌 독자 노조에서 실업자는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여노의 규약에서 실업자를 제외하고 필증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 실업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권리에 대해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외노조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교섭력 확보 등의 문제에서 불리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법외노조는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강제할 수 없을 뿐입니다. 따라서 교섭이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섭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그리고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섭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여성노동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교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차별적 인사, 해고라든지 사내 성희롱 등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 여성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싸울 수 있는' 역량입니다. 서울 여성 노동 조합의 조합원들은 피해자가 되었을 때 가해자, 혹은 회사를 상대로 싸워 나갈 수 있는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일년이라는 긴 준비기간 동안 이점에 주력했습니다.

대학에서 운동하는 대학생들도 여성독자노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동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단위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단위 역시 미래의 조합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대학 단위와의 긴밀한 연대는 필수적입니다. 사안에 대한 단순한 연대가 아닌 지속적인 연대, 깊이있는 연대를 이룩해내고자 합니다. 서울여노의 경우 학생 역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해방지기'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고 있는 대학생 친구들이 있구요,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서울여성노조와 서울지역여성노조가 성립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실업자를 포함하여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독자노조의 성립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는 여성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기 어렵게 하는 억압적인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조직화되고 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여성위원회는요,



이화여성위원회는 이화 안에서 여성주의적 담론 생성을 모색하고 여성운동을 가져나가는 자치단위입니다. 여성인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이화 안의 작은 물줄기를 독자적인 흐름으로 가져나가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일상으로부터 느끼는 억압에 대한 여성의 중얼거림이나 작은 몸짓 모두가 여성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거대한 모순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이제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억압스러운 일상에 대한 작은 반란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의 경험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운동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으로서 당당하고 싶으신 분은, '자유'를 찾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학생문화관 218호 여성위원회(3277-4708)로 오세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새내기들의 이야기

새내기탐에 들어가며 ...

여성위원회(이하 여위)라는 공간에 들어온지 한 학기가 지났다.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있음으로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무엇이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3차 성정을 통해 이화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작업을 지난 2,3주간 진행했다. 여위를 통해 변해 가는 우리를 보여주고 싶었고, 변한 우리가 있고 나서야 여위도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새내기가 되면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된 미팅과 연애, 그리고 그 연장선에 이어진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풀었고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여위에 들어온 후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대화체 그대로 실었음을 알려 드린다. (감, 탕이, 달은 사정상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미팅과 연애 그리고 결혼]

환 : 미팅이란 걸 왜 할까?

마녀 : 이성을 만나기 위해.

환 : 이성 구경하러 미팅을 하다니.. 동물원 같아.

확실히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있긴 있는 건가봐?

마녀 : 그렇지.

오이 : 나는 같이 나가는 과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나가기도 했었어. 근데 미팅을 나가서도 여자가 해야하는 행동이 확실히 느껴지잖아. 너무 아는 척을 해서도 안되고... 미팅 나가서 여성 운동 한다는 소리했더니 분위기가 싸아~해 지더라.

환 : 일단 미팅을 나가려고 하면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것이니 만큼 어쨌든 남자아이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마녀 : 그건 남자 애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환 : 하지만 남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기대치가 얼굴과 키 정도라면 보통 부차적으로 여자에게 기대하는 건 더 많잖아. 몸매, 화장, 머리모양, 옷입는 스타일.. 얼굴이랑 키는 선천적이지만 나머지는 여자들만 후천적으로 더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오이 : 그들이 원하는 '여성성'이라는 게 결국은 가부장제의 산물이잖아. 여성들 각각의 개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환 : 난 미팅 한 번도 안 해봤어. 처음엔 그런데 나간다는 게 너무 어색할 것 같았던 데다가 나 같은 경우엔 이대 불고 나서 이대생들은 미팅 엄청나게 한다는 소리를 비롯한 결혼, 남자친구 밝힘 시리즈 등등 워낙 불소리에 시달렸었거든. 나는 나가지 말아야겠다는, 거의 의무감도 작용했던 것 같아. 처음에 두 번 거절했더니 아무도 같이 나가자는 소리도 안하고 있고. 안해 보면 나중에 후회한다고들 하던데 아직까지는 안해봐서 그리 아쉬운 적 없었어.^^

마녀 : 연애를 하면 점점 의존적이 되어가는 것 같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내 가방도 개가 대신 들어주게 되고, 영화표를 끊어도 개가 대신 끊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점점 줄어들잖아.

오이 : 며칠 전에 인천에 락페스티벌 가서 봤는데 남자가 여자 허리를 계속 안고 서서 공연을 보는 거야. 나중에 여자가 뛰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기 한쪽 팔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여자가 뛰더라구. 끔찍하더라.

마녀 : '체이상 아이' 봤어? 난 그 결말이 너무 맘에 들었는데, 연인이었던 남녀가 헤어진 후 각자의 삶을 사는 거야. 억이지 않고 다양한 개인 그 자체로.

환 : 개인 각자가 존재하는 사회.. 결혼도 결국 억이는 거겠지?

마녀 : 사랑, 연애, 결혼이란 게 다 구조로 본다면 그렇지. MY WAY를 걷는다는 건.. 배제된 가능향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해.

환 : 결혼은 본능일까?

마녀 : 결혼이 뭔데?

환 : 다른 사람과 제도적으로 결합하는 것

마녀 : 결혼이란 게 음...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도가 본능이었을까? 본능은 차라리 섹스지. 결혼보다는 섹스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섹스 후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를 다시 하나의 노동력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기반이 가족이고, 이걸 묶어서 간편하게 보여주는 게 결혼이지

오이 : 난 결혼하기 싫어. 근데 누가 나보고 결혼을 두 번이나 한다고 하더라. -- 오늘 '안토니아 스라인' 봤거든? 거기서는 결혼 안해도 잘 살던데.

환 : 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이란건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었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가만 벗어나고 들어보고 하니깐 지금 사회에선 완전한 여자 손해인 거야. 내가 왜 그래야 돼? 결국 독신생활을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내가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그 결심을 이어갈 수 있을지 두렵다.

마녀 : 솔직히 난 결혼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환 :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도가 자연스러우면 좋을 텐데. 좋으면 결혼도 해봤다가, 아니면 그냥 헤어져서 살면 되잖아.

마녀 : 제도가 왜 필요할까?

환 : 권력을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편함이 아닐까? 박완서의 '서있는 여자' 읽어 봤어? 거기보면 여주인공이 평소 독신을 생각하다가 가사일이나 직장일 이런 거 다 이해해 주겠다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 근데 그게 결혼하고 나니까 다른 거야. 이 여자 자신도 모르게 가사일은 점점 자기가 하게 되고, 남자는 사회적으로나 자의적으로나 여자 위에 군림하게 되는.. 평소 자기가 혐오하던 가정 생활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야. 요즘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현실을 너무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읽으면서 소름이 다 끼치더라.

마녀 : 현실적이란 말은, 우리의 일상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이겠지. 여자는 가사일 하고 남자는 놀고.

오이 : 왜 그렇게 된 건데? 그냥 살다보니까?

환 : 그 주인공도 생각은 그게 아닌데 자신도 모르게 주위 시선이나 이런 거 신경 쓰게 되는 거야. 그리고 고정관념 때문에 가사일 하는 남편 보면 괜히 안쓰러워서 '이런 건 내가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고.

오이 : 전에 누군가도 말한 거 같은데, 심 같은 거 사서 여성들만 모여 살면 좋을 것 같아.

환 : TV 프로그램 중에 역사 추리가? 거기서 봤는데 우리 나라에 여성국이 있었다고 하더라.

마녀 : 여성들만 사는 나라... 좋을까?

환 : 여성 남성이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도가 문제인 거 아닐까? 여성들끼리 산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다시 가부장적 구조가 생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뭐 머리 큰 사람이 군림한다던가..

마녀 : 거기서도 지식인(?)이 군림할까?

환 : 모르지..^^

오이 : 결국 결혼이란 것도 수평적 세상일 경우엔 제도가 억압이 되지않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주의]

마녀 : 내게 있어서 여성주의란, 뭔가 기존의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막연한 느낌에서부터 출발해.

환 : 일단 여성주의라는 말 자체가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 여성주의란 말만 듣고 거부반응 보이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 나도 예전에 여성주의란 말 들으면 여성관을 만들자는 소리 줄로 이해했거든

마녀 : 여성관?

한 : 음...그러니까..남자들 다 몰아내고..여자들끼리 살자. 뭐 이런 식으로..

마녀 : 지금 내 생각으로는 여성주의라는 것이 '여성' 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관점? 시각?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데... 다르게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한 : 지금과는 다른..

마녀 : 그렇지. 기존의 것들을 다시 뜯어보는 것....이게 출발이고, 다시 만들어 가는 것이 해야 할 일들이고.

한 : 지금이 남성주의적 사회니까...그걸 뜯고 다시 보는 반대적 개념이 여성주의 아닐까?

마녀 : 음...갑자기 든 생각인데...세상을 보는 관점을 여성주의/남성주의로 나누는 것도 문제 있겠다. 단지 둘만으로 나누는 것 말야.

한 : 비교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

마녀 : 그럴 수도 있겠군... 아무튼 여성주의도 사회주의 무슨 주의 식으로 세상을 바꿔보는 개념인 것 같음...

오이 : 우리가 3차 성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지?? 대상이 여성주의에 관심 있는 이화인인지 아님 이화인에게 여성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건지..

마녀 : 여성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라면 솔직히 이 같은 매체지로는 효과가 덜 하겠지..선동/선전은.. 여성주의적 방식이 아닌 거 같아. 그래서 대상은 여성주의에 이화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오이 : 만약에 내가 여성주의를 모르는 이화인이었다면, 뭐 지금 아는 것은 아니지만...암튼 3차성징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활에 대한 위협일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마녀 : 충분히 위협적 일 꺼야. 그렇지 않나?

한 : 일상에 대한 위협을 깨닫게 되면 언제나 불안해하기 마련이지.. 나는 문제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오이 : 문제 인식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한 :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한번 쯤 생각은 해보지 않을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소리일까..정도라도..

마녀 : 우리는 태양을 등지고 서서 사물을 구별하지만.. 막상 태양에 다가가면 눈이 타들어 가는 것처럼 숨겨져 있는 음모(?)를 알게되면 충분히 위협적인 거지...

오이 : 아이언니가 얘기해 줘서 한 판 자료집에 있는 걸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 '여성주의는 여성으로서 억압에 대한 경험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것을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여성모순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단일한 주체들을 상정하지 않는다. 모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으로 인해 주체화되는 다양한 주체들을 인정한다.'

성폭력

입장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성폭력을 당해야만 한다.
간격에서, 지하에서, 여관에서,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기에 우리는 여성의 눈으로
성폭력에 대한 고민들을 진전시켜야만 했다.
이화라는 공간에 가해지는 편견과 성폭력 사건들,
물신 공간 속에서조차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온라인 성폭력,
그리고 대학 내에서의 성적 자율권 확보와
여성권 확보를 위한 성폭력 근절 학칙 제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이제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어야 한다고,
가부장제의 시선에 의해 재단당하고
난도질 당할 수 없다고 단정하게 외치고자 한다.

1. 이화를 대상으로한 성폭력
2. 온라인 성폭력
3. 성폭력 학칙 제정을 주장합니다

이화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들

이대포르노

처음 이대 포르노가 여위에 접수된 것은 작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빨, 이대'라는 제목으로 그 유명했던 '빨간 마후라'와 함께 녹화되어 있던 이 비디오는 한 여자화장실의 몰래카메라 영상이 여자대학의 졸업식장면과 한 컷씩 교차되는 내용으로 이미 통신망에선 '잘 팔리는' 포르노 중의 하나였다. 물론 포르노의 배경은 이대가 아니었으며, 출연하는(?) 여성들 역시 이대생이 아니다. 이후 이 비디오는 일본제임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올 봄 공대 여성 소모임 '전사'와 사이버 여성주의 모임 'WILL'과 함께 여위는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이대포르노 동영상에 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인터넷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공동대응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적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외국 ISP 계정을 가진 사이트라 법적인 대응이나 그 밖의 항의 메일 정도로는 대응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인터넷상 음란·유해정보에 대한 감시 자원들을 지원하는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네트워크' NSI(<http://krnsi.net>)와 정보통신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대응방법을 모색해 보았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학내에 알리는 단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현재 NSI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컴퓨터 음란물 감시단체인 '사이버 엔젤스' 등에 협조를 구해 이대포르노 사이트를 없애는 것을 모색 중이다.

연세대 익명 게시판 사건

이화 대동제가 끝나고, '올해도 무사히'라는 기쁨을 제대로 나누기 전에 나우누리의 연세대 익명 게시판에는 '고대가 지랄하는 이유는 이것이다!'이라는 제목으로 이화인을 철저히 성적대상화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이대생을 '참수로 치면 연, 고대와는 비교도 안 되면서' '서울대에게만 다리를 벌려주는 고급 쿨걸'이라 비하하면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대생들이 집단난동을 부린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고대동에서는 한 고대인이 이 글이 '주목할 만한 새로운 관점'이라며 연대 익명에서 퍼와 게시판에 올려 놓았다. 그러나 비단 이 글 뿐만이 아니라 연대 익명에는 이화 및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익명'이라는 무기를 얹고 자행되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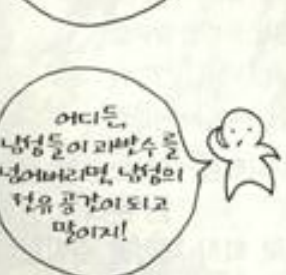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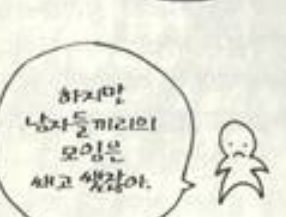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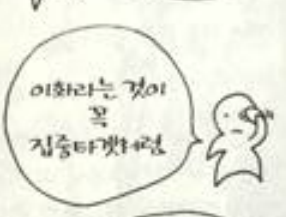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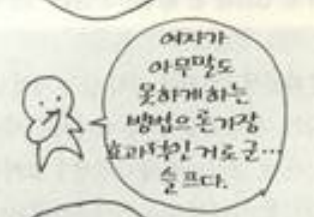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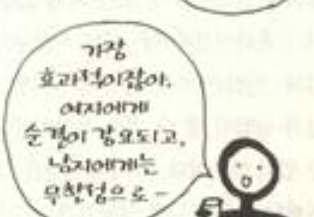
이화여성위원회는 이 사건을 여성을 남성의 쾌락을 위한 성적대상물로 사고하는 사회의 성의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성명서를 통해 문제제기하고 계속적으로 여성비하적인 언설이 올라오는 익명게시판의 폐쇄 및 연대 시위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시위의 사과는 받았으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익명의 폐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동에서는 잠정적으로 익명게시판을 폐쇄하였으나 현재에는 나우누리 연대 동호회원들의 투표로 다시 부활된 상태이다.

고대생 집단 성폭력

96년 500여명의 고대생은 응원가를 부르며 이화광장을 점거, 이화대동제를 순식간에 망쳐버렸다. 이화의 한 학우의 팔이 부러지고, 여러명의 이화인이 부상을 입는 등 이화 피해는 엄청났다. 이화인들은 고대생 집단난동을 그들이 주장하는 전통, 치기, 재미가 아닌 여성공간에 대한 명백한 성폭력임을 규정하고 남성중심적 놀이문화의 폭력성에 문제제기하기 시작했다. 97년에는 고대생 집단 성폭력이 시작된지 12년만에 이화대동제를 이화인들의 힘으로 지켜냈다. 그리고 98년, 또 다시 이화대동제에서의 고대생집단성폭력은 일어났다.

99년 역시 이화여위는 고대생집단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양 학교 총학생회와 고대 여학생위원회, 이대 여성위원회가 함께 대책을 모색하는 4자 테이블, 그리고 이화 내에서의 여론화 작업, 대동제 기간 동안 지킴이와 함께 한 순찰활동 등을 통해 이화 내에 가해지는 고대생 집단 성폭력 근절활동을 진행하였고, 99년 우리는 별 탈 없이 대동제를 치루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고대생집단성폭력 끝났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낭만이나 치기어린 행동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고대생집단성폭력은 '성폭력'이 권력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은 폭력은 하루에도 수십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성폭력

들어가는 말

온라인 성폭력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PC통신과 인터넷 여성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현실 공간에서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의 성추행만큼이나 빈도수가 잦고, 피해정도가 심각한 범죄이다. 그러나 온라인성폭력은 개념 자체부터 사회에서 거부당하고 있다. 원인은 바로 성기 중심적인 성폭력 개념 때문이다. 성기 삽입이 될 수 없는 온라인상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해당시 뿐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당혹감, 분노, 불안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겪으며 이후의 통신이용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느끼며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온라인 성폭력은 통신공간에 대한 전체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하고 활동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

온라인성폭력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 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성권력의 발현이다.

대한 문제이다. 또한 온라인 성폭력은 단지 가상공간만의 일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의 남성중심적인 잘못된 성문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온라인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

여기서 우리는 온라인 성폭력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성폭력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성권력의 발현이다. 또한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이 아니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온라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고, 이는 PC 통신,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음란전화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 유형으로는 시각적으로 야한 그림을 보낸다거나 대화방에서 혹은 메모, 메일을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종 통신 매체를 이용한 신종 성폭력들이 과학발전에 힘입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를 '디지털 성폭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화장실 몰카(몰래카메라)에서부터 섹스 비디오, 사이버 스토킹, 핸드폰 성폭언 등이 이에 속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유포된 '오양 섹스비디오' 사건, 이대 화장실 몰카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넷상에서 여전히 진행중이다. 게다가 온라인 상의 성폭력은 언급했듯이 변태나 정기 모임 등 오프상의 성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온라인 성폭력에 대해 이 글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상공간은 현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절대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믿어지는가? 여성은 혼자있는 방 안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위의 예들은 단지 특별한 경우에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다. PC 통신의 경우, 이처럼 대화방이나 메일, 메모 등을 통해 일어난다.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에는 여성 개인의 정보를 빼내 미팅게시판 등에 올려 음란전화 등으로 계속적으로 괴롭히다 구속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여성 개인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협박성 메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사례도 아주 많다.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은 온라인 상에서만 벌어지는 지속적인 괴롭힘과 온라인 상에서 실제 현실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인터넷은 익명성이 가장 잘 보장되는 동시에 확산력이 기하급수적이며, 일반 상용통신망보다 빠르기 때문에 피해정도가 아주 심각하다. 또한 국내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외의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더욱 큰 문제점을 갖는다.

PC 통신은 그나마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있는 편이지만, 인터넷의 경우에는 법적인 대책이나 인식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인터넷포르노-누구의 시선인가?

누구에게 유해한가?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위의 질문들을 다시 하고 싶다. 인터넷 포르노는 명백히

세계 여성 전체에 대한 성폭력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논쟁은 곧잘 표현의 자유와 시비가 붙거나, 규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조차도 아동 및 청소년의 음란물에 대한 보호가 고작이다. 그러나 포르노는 분명 남성의 시선이며 남성을 위하여 제작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포르노에 대한 입장을 말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포르노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포르노 자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포르노는 '매춘부에 관해 쓰다'라는 의미를 가진 희랍 합성어이다. 현재, 포르노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엄청난 성산업이며 항상 새로운 기술을 가장 빨리 흡수하면서 -인쇄술의 발명으로 책, 잡지를 통해, 사진의 발명으로 음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제 전자 미디어의 발전은 그 확산 정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VCR, 전화, 팩스, 캠코더, 컴퓨터 통신 및 인터넷 등등- 놀라울 정도의 확산력을 자랑한다.

인터넷 포르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강 다음과 같다. 채팅, 온라인 게임, 유즈넷(Usenet)의 뉴스 그룹 그리고 성인 잡지 등의 광고 홈페이지, 사설 BBS 등이다. 유즈넷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음란물을 제공하는 성인사이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설BBS의 경우에는 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료 서비스도 상당 있다. 오양 비디오나 이대 포르노가 유통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리고 이는 빠른 속도로 개인 홈페이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의 PC통신은 통신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관리자가 있어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책임 관리와 책임자가 있었던 반면, 웹 페이지의 경우 특정 다수가 명확한 관리체제 없이 독립적으로 각각의 자료들을 올려놓을 수 있어 온라인 성폭력의 가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그 책임이나 소재를 파악하기 힘든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에 의하면, 범법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익명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처

나랑 싸구려 한번 풀까? 내가 화끈하게 해줄게... 잘부서줄게? 싫어?

"이리와... 가슴을 빨고 싶어."

"어서와... 팬티속 구경좀 하자"

"아그들아 좇방망이질 할때까지 꺼져라"

(성폭력 상담소 상담 사례 중에서)

벌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IP address를 추적하면 되지만 학교나 PC방의 공용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용이 되질 않고, 이용자가 밝혀놓은 이메일 주소를 추적한다 해도 실명으로 메일 주소를 등록한 경우는 없다. 그리고 요즘은 많은 경우 국내 ISP계정을 이용하지 않고, 외국 ISP 계정을 이용해 한글 포르노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규제는 더더욱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예 포르노 전용 서버도 있다. 그리고 각국의 규제법률이 부족한 가운데,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인터넷 포르노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이화여대 화장실 물레카메라'라는 제목을 포함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방법을 알아 보았지만 처벌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 가운데 피해 받는 여성, 여성집단은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 조직화를 말한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정부가 포르노 업자들만큼 부지런하다면"이라고 말하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법제정 및 개정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

통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기술적으로 온라인 성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각 통신사에 있는 여성 동호회 등에 가입하자. 그리고 넷상에서의 여성연대 네트워크망을 조직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여겨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국제적인 범망의 구축이 따르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할 지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네티즌의 자정적 노력도 중요하다. 일단은 규제가 가능한 국내 상용 통신망과 국내 ISP계정을 가진 사이트들을 공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같이 하는 여성들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여성들의 기술력 확보이다. 통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기술적으로 온라인 성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각 통신사에 있는 여성 동호회 등에 가입하자. 그리고 넷상에서의 여성연대 네트워크망을 조직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이는 나아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온라인 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맺는말

온라인 성폭력은 현실 세계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온라인 상의 여성연대를 통해 현실 세계를 바꿀 힘을 발견할 수도 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분노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내 방안에 혼자 있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분노한다면!

참고 자료

- 한국성폭력 상담소 <http://www.sisters.or.kr/>
- 인터넷 도련 추방 <http://www.krnsi.net/>

PC 통신에서 온라인 성폭력에 예방 대처하는 방법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서 도움 받았습니다.

다음은 온라인성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1. 개인정보 관리

- (무성적인 ID나 대화명)을 이용합니다.
- 비밀번호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이 유추해낼 수 있는 번호는 피하고, 정기적으로 바꿉니다.
-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합니다.

2. 당신과 이야기하는 사람을 주의합니다.

- 누구에게나 친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당신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사람이더라도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그와 대화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원치 않는 메일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화에 불편함을 느꼈다면 언제든지 통신을 그만둘 권리가 있습니다.

3. 통신에서 만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합니다.

- 친구와 함께 나가거나 공적 장소에서 만납니다. 당신이 어디 가는지 주위사람에게 알립니다.

4. 실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을 보낼 때 주의합니다.

- 가능한 낮은 사람에겐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내키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 7. 기술적인 측면 - 프로그램(썬/메일 수신거부, 특정 내용/발신자에 따라 자동으로 전자우편 삭제)을 이용합니다.

- 8. 컴퓨터 기술을 습득합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

- 1. 오프라인에서와 똑같이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 2.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3. 대화실 등에서 온라인성폭력 가해자를 보면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돕습니다.
- 4. 통신회사와 당신의 안전, 프라이버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용자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통신상에서 희롱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그들이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봅니다.
- 5. 동호회 등에 가입해 있다면 블랙리스트/신뢰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공유합니다. 또한 온라인 성폭력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통신공간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을 해올 때

- 1. 가장 먼저 할 일은 화면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 2. 그리고 나서 최선의 대응책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만두기만을 기다리며 무한정 기

다리지는 마세요.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으면 지금 행동을 취하세요.)

③ 소극적인 대응 - 방을 바꿉니다. 이때 상대방이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르지 않습니다 /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합니다 / 대화명을 바꿉니다 / 당분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④ 적극적인 대응 - 원치 않는 행동임을 말하고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슬퍼하는 대신 분노하세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맞서세요.

· 대화실에서는 공개적으로 경고하세요.
성폭력을 멈추지 않을 경우 상세한 내용을 회사나 신고 기관 등에게 알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단호한 경고편지를 보냅니다.

· 모든 상호작용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그 사람이 보내는 쪽지나 메일이 수신되지 않도록 환경을 설정해 둡니다. (각 통신마다 쪽지/메일 수신거부 기능이 있습니다.)

· 피해상황과 관련한 모든 메일, 갈무리한 파일을 시간과 날짜와 함께 자세히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통신회사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도 모두 보관하세요. 당신의 생활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 전자우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보낸 메일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받은 메일은 반드시 바이러스 체크를 한 후 봅니다.

⑤ 상대방이 행한 온라인성폭력의 증거물들(갈무리한 글, 메일)을 공개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사회적, 직업적 결과를 감당하도록 합니다.

[경고편지는 이렇게 쓰세요!]

분노, 두려움을 보이지 말고 위협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호하고 냉정하게, 조용히, 요점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만약 한 번 더 보내면, 회사측에 알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메일을 보낸 후 그 사람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멈춥니다. 이후의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당신이 어떤 식으로 반응한다면, 그의 행동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범정에 가게 된다면, 가해자는 커뮤니케이션이 쌍방간의 의사소통이었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당신을 변호하고 싶어도 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친구도 그와 의사소통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도록 합니다.

[증거자료를 모으세요]

온라인성폭력과 관련된 1. 가해자/회사측과 주고받은 모든 전자우편 2.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 3. 대화내용을 갈무리한 파일 4. (오프라인에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자동응답기 녹음내용 5. 증인의 전술 6. 모든 상세한 가해 기록 (날짜, 시간)과 당시의 심리상태 7. 의사, 상담원 등의 전술

데이에상[미]를수[없]습[니]다

성폭력근절 학칙제정운동!

성폭력의 피해 정도를 강간, 성추행 등 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성폭력은 여성에게 심각한 피해를 남깁니다. 개인마다 다른 피해 경험을 할 수도 있구요. 온라인 성폭력을 당하고 자살한 어린 여학생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무엇이 성폭력이고 그렇지 않은지도 피해자가 그 상황을 폭력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폭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현실 속에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느낌과 그녀의 인격을 무시하며 다루어집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동정하는 목소리들, 한중 가섬으로만 다루는 분위기 속에서의 사건의 조사와 해결 방식.

실제 사건의 해결을 위한 노력 속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묻혀지고 그녀는 이중 삼중으로 마음을 다칩니다. 피해자가 겪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 언제나 성폭력의 잠재적 피해자인 우리가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수는 없습니다.

반여성적인 사회를 바꿀 수는 없다고 좌절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흐름을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성폭력을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결하고, 치유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학칙.

지속적인 반 성폭력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학칙.

먼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 곳에서 움직인다면... 그 땀 이미 세상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근절 학칙제정운동을 지금 시작합시다!

미인대회를 반대한다.

미인대회를 반대한다.



미인대회를 반대한다.

매매춘

흔히 우리는 매매춘 여성과 우리들을 분리시켜 사고한다.
그러나 문제는 매매춘 여성들이 억압받는 고리,
몸이 상품화 되는 고리와 우리가 여성이기에 가져야 하는 억압의 고리가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것이다.
지난 겨울 우리는 기활 교양학교와 기지촌 현장활동을 통해
매매춘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했고 그 삶이 우리와 맞닿아 있음을 고민해야 했다.
매매춘을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기활 현장활동 체험기를 통해
그 고민들을 이화인들과 함께 가져나갔으면 한다.

1. 달아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고리 매매춘
2. 기활을 다녀와서.

달아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고리

매매춘

이 글을 쓰기 까지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어느 곳에 이 편지를 보내야 할지, 또한 이 글을 읽으시고 진정으로 이곳에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실지? 위험을 무릅쓰고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주방 아줌마로 일해 왔습니다. (중략)

(아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한번 이곳 업주들과 연결이 되었다하면 들어올때는 맘대로 들어왔어도 막상 후회를 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철대로 전화는 물론이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까지 가혹한 감금과 폭행을 입상아 치마 눈 뜨고는 보지 못합니다. 악물과 매에 못이겨 결국은 죽어서 나가는 이들도 있고, 죽어서까지도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몸이 많이 아프거나 병이 걸리면 섬이나 다른 곳으로 팔아 넘긴답니다.

이곳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전문가와 불량 학생들이 많은데 한명당 약백만원 많게는 오백만원까지 손에 쥐어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친한 여자친구까지 데려오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만약 도망을 가다 들켜는 아이는 애들이 보는 앞에 놓고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폭행을 합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어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때려 밥을 굶겨가며 몇일씩 감금을 합니다. 이곳 업주들은 간혹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만약 운이 좋아 단속에 걸린 애들도 보복이 두려워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훈련받은 대로 대답을 합니다. 언뜻 보이도 어리고 어린 중학생인데도 마성년자가 아니고 갈 곳도 없고 원해서 와 있다는 이유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진정으로 도와주려는 사람이 나타나도 바른 말을 절대로 못합니다.

또한 단속에 걸려도 업주들이 돈으로 해결을 보기 때문에 애들이 빠져나가기란 극히 드문 일이지요.

검사님, 도와주십시오.

수없이 많은 청소년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악물과 주사로 몸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중략)

검사님, 이곳에 있는 애들이 검사님의 딸들아라는 심정으로 어두운 골목에서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이 저들이 좋아서 돈벌겠다고들 하지만 철대로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검사님, 뒷일을 위해 제 신분을 밝히지 못함을 이해하십시오.

제 이름은 기명입니다.

생활정보지 광고도 문제가 없습니다.

호기심에 10대들이 무심코 전화했다가 너무나 친절함에 현혹되어 들어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검사님, ○○○○○○공목에 있는 10대들을 하루 속히 구해주십시오. 너무나 불쌍하고 막대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검사님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8년 4월 8일 ○○○○ 올림

- 대검찰청에 접수된 신원미상의 제보 편지

이 글을 쓰기 위해 자료들을 뒤지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매매춘 현장에 있지 않은 내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 매매춘에 대한 문서들을 뒤적이며 쓴 글이 얼마만한 진실성과 내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 나는 자신이 없었고 지금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매매춘 문제는 단순히 매매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엾은 그녀들'에 대한, 자매애를 방자한 동정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매매춘 문제는 여성문제의 결정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에 동의한다. 매매춘은 계속해서 여성들을 억압에 묶어두게 하는 중요한 기제이며 결과물인 것이다. 범역사적이고 범지구적인 매매춘의 문제를 살펴보기 이전에 지금 현재 한국으로 시야를 집중시켜도 그것은 마땅가지이다. 따라서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다고 하여도 이화여성위원회는 매매춘 문제에 눈을 감을 수 없고 끊임없이 이화 내에서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진행될 글은 왜 이화여성위원회가 매매춘 문제를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매매춘 문제는 여성문제의 정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에 동의한다. 매매춘은 계속해서 여성들을 억압에 묶어두게 하는 중요한 기제이며 결과물인 것이다.

당신은 매매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혹 당신은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매매춘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는 물음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 나는 '성'은 절대 신성불가침의 지역이라고 도덕과 경제적 합리주의 사이의 논쟁을 펼쳐나갈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현실적인 질문을 몇가지 던져보고자 한다. 매매춘 시장의 존재 이유가 다만 어떠한 것의 매매도 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이라면, 어째서 거의 대부분의 매매춘 시장에서 그 수요자는 남성이고 공급자는 여성인 것인가. 그리고 어째서 매매춘 여성들은 그토록 낮은 지위에 존재하는가. 한 마디 덧붙이자면 내가 말한 낮은 지위는 단순히 사람들의 편견어린 시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매매춘 여성들의 매우 낮은 경제적 지위와 간단히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 시장의 구조를 모두 포함하는 이야기이다.

이효희씨는 자신의 글에서 매매춘이라는 용어에 비해 '성적 서비스'라는 용어가 갖는 정치적인 함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성적 서비스'의 단어는 기존의 고정된 매매춘의 의미에서 벗어나 색스어필한 광고, 미스코리아대회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회현상으로서의 성산업체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남성중심적인 사회는 여성들의 성적 서비스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남성들간의 단합을 위해서건 원만한 비즈니스 거래를 위해서건 일상의 활력을 위해서건 여성들의 성적 서비스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의 여성의 성은 이미 여성의 것이 아니라 그 정에서 쾌락을 얻기 위한 남성의 것이 되며 따라서 여성의 감정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매매춘은 말 그대로 '여성의 몸 속에서 일어나는 남성의 자위 행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성이 남성의 소유물이며 따라서 남녀간의 성관계가 평등한 소통의 장이 아닌, 남성이 자신의 지배력과 권력을 확인하는 장이기 쉬운 현재의 상황에서 매춘 여성이 자신의 몸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현재의 매매춘은 여성의 노동력이나 능력의 일부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의 몸 전체를 남성의 소유 아래 놓아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지점에서 강간과 매매춘은 단지 '화대의 유무'로서만 구별될 뿐이다.

매춘 여성들도 매매춘 상황에서 자신이 한낱 물건으로만 인식됨을 느끼기에 몸과 정신을 분리하여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몸'은 정신의 단순한 거

그러한 맥락 속에서 매매춘은 말 그대로 '여성의 몸 속에서 일어나는 남성의 자위 행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성이 남성의 소유물이며 따라서 남녀간의 성관계가 평등한 소통의 장이 아닌, 남성이 자신의 지배력과 권력을 확인하는 장이기 쉬운 현재의 상황에서 매춘 여성이 자신의 몸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지이상이며 자아와 세계를 연결하고 행위 속에서 적극적으로 정신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지니므로, 몸과 정신의 분리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한 여성의 몸이 남성을 위한 자위도구로 존재할 때 그것이 주는

타격은 (그 여성에게나, 모든 여성에게나, 모든 인간에게나)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동시에, 남성에게는 무제한의 성적욕망 추구가 장려되고 여성에게는 순결을 강요하는 이중적 성규범은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지위와 함께 매매춘 문제의 주요한 한 축을 구성한다. 한 성의 쾌락을 위해 한 성의 고통과 상처는 묵과될 수 있다는 기묘한 논리를 전제하고 있는 이중규범은, 매매춘이 사라지면 강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가능케하며 매춘 여성들의 열악한 지위를 합리화한다. 이중규범의 허구성과 기원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단, '성'이 온전히 생물학적인 범위의 것인지 사회적 각본에 의해 구성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주 1) 성매매 산업의 막대한 구조 속에서 실제로 매춘 여성들은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기술이 갈 곳 없는 여성들에게 당장의 생활비 및 გადა들고 고리와 빚을 치우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여성들의 수입을 착취하고 빚을 늘려나가는 방법들은 빈틈없이 체계화되어 있다. 포주와 기본적인 착취외에도, 거액의 소개비를 달아놓는 직업소개소 역시 고리와 빚으로 매춘 여성들을 몰아매어, 포주와 연결되어 그녀들을 감시하는 조작특별대도 보호의 명목으로 매춘 여성들의 수입을 착취한다. 지역의 경찰들이 요구하는 상납금도 무시할 수 없다. 심지어 매춘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성점과 택시기사들이자 택도 없이 비싼 가격을 부른다. (그러나 매춘여성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그 고가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포주가 매춘여성들을 묶어두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접근시키는 미약과 도박 사업 역시 그녀들의 수입을 앗아간다.

이러한 성매매 산업을 통한 지하경제는 지역경제의 주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대개 포주들은 다른 버젓한 직업을 겸하며, 그 막대한 부를 통해 지역의 유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지역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 지하경제의 효용을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다만 우리는 시간이 흐름수록 커져만 가는 빚을 안고 점점 더 열악한 곳으로 돌아가는 매춘 여성들의 삶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2) 성매매 시장에서의 인권 유린은 전문적인 매매춘업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단란주점, 노래방, 화제이발소, 비디오파, 안마사술소, 다빈동 다른 업종과 겸하는 이른바 산업형 매매춘 업소에서도 조작특별대와 연결되어 이렇거나 규율 위반시 혹독한 처벌을 가한다. 이 곳에서도 빚의 고리는 끊이지 않아 단순유혹장악형위로는 빚을 갚기 힘들게 해 매매춘의 길로 유도하고, 빚을 다 갚지 못했을 때 다시 산업형 매매춘업소에서 전문적인 매매춘업소로 팔려가게 한다.

서울폰팅



여성무로

판을 던지고 넘어가려 한다. 솔직히 말하면, '성'의 영역만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다른 모든 특성과는 다르게 순수히 생물학적이고 비사회적인 영역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은 '사회화'의 의미와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성문화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나는 늘 궁금했다. 포르노와 매매춘으로 이루어진 남성들의 성교육이 (이 성교육의 핵심은 남성의 성욕에 대한 찬양과 폭력성 학습이다) 공간을 부추킨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사실이며 통계적으로도 매매춘이 활성화된 나라일 수록 강간률이 높다.

이처럼 남성들은 자신에게 지배적인 권력이 부여되는 매매춘 경험을 통해 여성들을 주변화시키는 방법을 습득하고 여성의 성에 대한 존중감을 지워버린다. 남성들의 성욕은 언제나 자랑거리라는 것도 동시에 배워 이중규범을 비롯한 왜곡된 성문화를 계속 공고히 해나간다.

또한 매매춘 문제는 성규범의 문제만은 아니다. 어째서 여성이 여러 위험 부담을 안고 성매매의 현장에 올 수 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매매춘 문제는 여성노동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이 돈을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에 성매매의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진심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계속

해서 자신의 몸을 노예화시키려는 여성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가정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도 매매춘 문제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고리로 작용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비호하고 있는 가부장적 국가도 매매춘 문제에 함께 얽혀 있다.

매매춘은 이 사회에서 여성의 열악한 위치를 재확인시켜주며 동시에 유지시킨다. 여성의 자아와 존엄성을 충분히 존중하는 사회라면 성매매의 시장이 이토록 거대하고 철저하게 착취적으로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역으로 여성을 착취하는 거대한 성매매의 시장은 모든 여성의 자아와 존엄성을 붕괴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돌고 돌며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다양한 가부장제의 요소들 앞에서 아무 것도 못 본 양, 아무 일도 없는 양 태연스레 살아가도 우리가 여성인 이상 연젠가는 필연적인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리라. 지금 우리가 성매매 시장의 억압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매매춘은 이 사회에서 여성의 열악한 위치를 재확인시켜주며 동시에 유지시킨다. 여성의 자아와 존엄성을 충분히 존중하는 사회라면 성매매의 시장이 이토록 거대하고 철저하게 착취적으로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역으로 여성을 착취하는 거대한 성매매의 시장은 모든 여성의 자아와 존엄성을 붕괴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기활을 다녀와서

블랙

사실 나는 기지촌 문제에 대해서 들어만 보았을 뿐 진지하고 주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은 없었다. 여성운동에 대한 오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기지촌 문제는 나에게 와 닿지가 않았다. 여성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현장 중 하나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 사회에서 매매춘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으며 관련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한다면 결코 생소해하거나 외면해 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이번에 기지촌에 다녀온 일들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던진 의문은 이러한 것이었다.

기활을 망설임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우선 객관적으로 볼 때 졸업을 한 해 남긴 처지에서 농활도 아니고 기활이라니, '그런 건 새내기때나 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로 부터 이런 말이라도 들을까 신경이 쓰여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기지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현장 활동씩이나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망설임도 있었다. 경험하기 전에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심리적인 이유도 있었다. 당장 졸업한 이후의 생계 문제도 자신이 없어 불안해하고 있는 처지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짐스럽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들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마음만 무거우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과 능력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것까지 마음에 두고서 견딜 수 있을까 싶었다.

이런 복잡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활을 떠나게 되었다. 나흘간의 토론과 강연을 통해서 기지촌 및 매매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다. 매매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많음을 발견했다.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서 피할 필요도 없었다. 또 한가지 결심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현장출신 활동가인 김연자씨의 글이었다. 짧은 활동을 통해 현장을 눈으로 보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고민해 보고 실천하는 데 기활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동두천은 생각했던 것처럼 먼 곳이 아니었다. 의정부 역에서 삼십 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동두천에 내릴 수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서울에 있는 작은 동네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도 처음 갔던 날에는 그 거리를 걷는 것조차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언니들을 처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 사소한 것까지 걱정하게 되었다. 지나친 걱정이 태도를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니 편안해졌다.

새우터는 어린이 놀이방과 상담센터, 허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일한 곳은 허브 가게였다. 허브 가게는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전업을 위해 시작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방해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언니들도 다른 일이 있다면서 가게를 금방금방 떠나는 바람에 이야기를 별로 못 한 것이 안타까웠다.

기활이 나에게, 기지촌의 언니들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기활이 끝난 직후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기활학교에 참여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너무나 심각하고 복잡한데 기활기간 동안에 보고 들은 것들은 별로 없다는 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싶기도 했다. 앞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막막하기만 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지금, 기활은 어느덧 나의 생각을 많이 바꾸어 놓았음을 발견한다. 이번 기활 이후로 언니들은 조금 더 변했다고 한다. 허브 화분과 향주머니를 시내에 들고 나가서 직접 판매하기도 했다.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장에서 허브를 잔뜩 가지고 와서 다른 여성단체들과 나란히 앉아 판매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짐스러워해야 할 일이 아님을 지금은 깨닫는다. 기지촌의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과 생각, 감정을 나누면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이다. 무언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백이 될 뿐이다.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고, 능력이 닿는 한 도움을 주고 받을 마음만 있다면 모든 관계는 가치있는 것이다. '자매'나 '언니'나 하는 말도 좋지만 그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삶을 같이한다는 느낌만으로도 든든하지 않은가.

기지촌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뛰어든 현장 활동이지만, 활동 이후 나의 생각과 생활은 크게 바뀌어 버렸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 무슨 준비가 그렇게 필요하겠는가.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한다. 예전에는 기지촌에 관해 말하는 것만으로도 웬지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기지촌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해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이제는 기지촌 사람들의 삶이 나를 심란하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곳의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도와줄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음을 달아 걸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새움터 - '기지촌 여성과 아이들의 튼튼한 삶'

새움은 새싹을 가리키는 우리말이며 새움터는 '새움이 돋는 곳'이라는 뜻으로 소외된 기지촌에 사랑과 희망이 움트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미군들을 상대로 어렵게 생활을 꾸려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회는 이들의 어려움을 모른척 해왔습니다. 새움터는 기지촌에서 가난하고 동떨어진 삶을 이어 가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늘 겪는 문제를 서로 도와 풀어 내며 차츰 차츰 스스로 삶을 키우는 일에 작지만 단단한 밑거름이 되고자 꾸려진 곳입니다.

새움터 후원 계좌

국민은행 205-21-0823-001 우체국 100834-0104156 (예금주 차은영)

주택은행 616925-01-018043 농업 106-01-109781 (예금주 김명분)

아동후원금구좌 우체국 100834-0115446 (예금주 서민옥)

여성위원회 홈페이지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와의 눈으로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이화 여성 위원회

당당한 자매에, EWHAS 홈페이지!

<http://mm.ewha.ac.kr/~ewhas>

당당한 자매에

이화 내 여성운동의 움직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화여성위원회, 공대여성주의

소모임 '전사', 이화사이버여성주의

모임 'WILL'의 홈페이지가

모여있지요~.

토론으로 풀어보자

이화인들이 여성관련 이슈들을

함께 고민하는 곳입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방학동안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나눔터

여성학, 여성운동, 여성관련 행사에

관한 이화인들의 생각과 의견,

정보를 교환하는 곳입니다.

때론 투덜거릴 수 있는 일기장이

될 수 있구, 때론 함께 분노하고

힘을 더해줄 수 있는 말들을

쏟아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음껏 사용하자구요!

클릭-click! 이화여성위원회 홈페이지!

<http://mm.ewha.ac.kr/~lovewom>

NEWS

최신판 여위뉴스.

열혈(?)웹지들이 마구마구

새소식을 올립니다. 주목하세요.

우리

여위에는 어떤 얼굴들이 있는지요?

한 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를...

자료집

여위가 발간하는 일련의 자료집들 중 <3

차성징>과

<페미니즘문화제 자료집>의

글들이 올라있습니다.

자료더미

자료집에서 볼 수 없는 자료들을

이 곳에서 찾아보세요.

Powerful Sisterhood

이화안의 여성공동체들을

소개합니다.

White Board

이화인들의 목소리가

담기는 공간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우리는 '정신대'라고 불리우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흔히 지나간 민족의 아픈 역사로만 사고하곤 한다. 그리고는 곧잘 잊어버린다.
그러나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전쟁시에 여성이 어떻게 억압받는지,
여성의 몸이 어떻게 취급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잊을 수 없는 문제이며,
지금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이다.
여성위원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법정 준비,
그리고 수요시위에 대해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왔다. 할머니들의 아픔을,
그리고 여성들의 억눌린 억압들을 이제는 제대로 보아야 한다고.

1. 다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말한다.
2. 수요시위, 그리고 수요시위 교양학교

다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말한다.

-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학생법정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90년 초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여론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정부에 대한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370차를 넘어선 수요시위, 그간의 어렵고 긴 싸움을 할머니들은 힘있게 버텨오셨다.
그리고 전쟁 이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몇분의 할머니가 숨을 거두셨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학생법정은 여기서 시작한다.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1999년도를 살아있는 나, 여성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짚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현재적 의미

1. 귀국 후 계속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

당시 일본군 성노예 정책이 갖는 폭력성은 귀국후 피해
자 할머니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본
군 성노예 문제는 민족, 국가간의 모순, 계급 모순, 그리고
성모순이 서로 중첩되는 가운데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하
지만 피해자 여성의 경험속에서 가장 큰 고통으로 드러나
는 것은 성모순이다.

가족관계에 의해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규정되는 한
국사회의 가부장적 메커니즘은 결혼이라는 정상적 가족제
도에 편입되지 못하는 여성이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겪을
수 밖에 없게 한다. 성노예제에 의해서 생긴 피해자 여성의
육체적 상처 역시 한국사회의 성문화와 맞물려 지속된다.
성병 치료와 낙태 시술로 인해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해진
다는 것은 이들에게 전 생애에 걸친 좌절과 고통을 의미한
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순결이데올로기는 전쟁 이후
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은폐시킬 수 밖에 없도록 조
장해 왔다.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단초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이후 초기 여론화에 유의
미 했던 민족담론 역시 순결이데올로기의 단면을 드러냈
다. '순결한 조선의 딸'을 강간한 일본군에 대한 분노속에
할머니들의 경험과 고통, 여성의 인권은 없었다. 한-일이
라는 적대적 도식관계 속에서 한민족의 상징으로 피해자
여성을 사고하는 것은 할머니들 개개인의 구체적 상황 고
통의 경험에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피해자 여성의 귀국 후 삶의 맥락 속에서 전쟁 당시의
경험으로 인한 상처와 한국사회의 성이데올로기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작동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경험을 드러내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구조적 모순
을 밝히고자 함이다.



2.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냉전 체제 이후 새로운 무력갈등이 국가와 국가간, 민족 집단간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이다.¹⁾ 무력 갈등시마다 국가와 군대는 여성을 저항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자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성적 도구로 취급했으며 이는 국가주도하에 자행된 조직적이고 규칙적인 강간 또는 민간에 의해 주도된 산발적이고 무규칙적인 강간 등의 형태로 드러났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역시 여성에 대한 제도화된 성폭력이 남성중심적 패권주의의 극단인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합리화 된 것이다.

16세기 중반 일본에서 공창제도가 만들어지던 당시부터 군국주의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1905년 이미 러·일전쟁 당시에 일본군대가 여자들을 강제 동원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의 군

대화와 산업화는 군국주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다시 천황제와 긴밀히 연결된다.²⁾ 천황제는 실제로 전쟁과 전쟁범죄를 가능케 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20만명에 달하는 여성이 강제 동원되어 성적 착취를 당한 것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현재 일본이 또 다시 군국주의의 음모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치권의 보수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전쟁 범죄 은폐, 성노예제 관련 망언 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히노마루를 국기로 채택, 기미가요를 국가로 채택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일본의 기만적 태도는 종전 이후 지금까지도 갖은 범죄의 지속과 함께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3. 우리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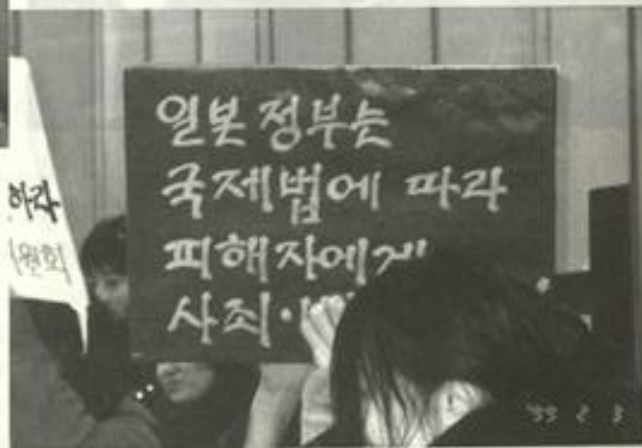
여성들은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999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일상의 성폭력'이라는 끔찍한 우리의 경험이 전쟁 당시의 성노예제에 의한 피해자 여성의 경험과 맞닿아 있다고 한다면 과장일까. 하기에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이 합의하는 바가 일본정부의 사죄, 배상 만은 아닐 것이다. 다시는 여성이 전쟁과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0년 학생법정에서 우리는 감히 여성으로서의 억압의 경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요인 중 하나라고 말할 것이다. 전쟁과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의 역사속에서 여성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하기에 일본군성노예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에도 지속되는 문제인 것이다.

4. 다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학살법정에서

주 1) 르완다 내전시 자행된 여성, 소녀들에 대한 대량 학살과 집단적 강간,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 내에서의 인종청소와 정책적 실행에 있어서의 수단으로 사용된 집단 강간과 강제 임신, 인도네시아의 군의 동티모르 점령 당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미얀마의 군사정권과 최근 군부주의자들의 의한 아프가니스탄과 알제리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미군 기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그리고 바로 얼마전 한국에서 있었던 한승원 탄압피장에서 자행된 공권력에 의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2) 정진성 '정산대 문제와 여성의 인권'

학생법정은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이하 본법정)의 개최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흐름을 대학 사회 내에서 알려내고 함께 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본법정은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20세기를 마감하

고 평화와 인권이 숨쉬는 21세기를 열자'라는 기초하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한국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모의법정이다. 본법정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국제법에 위반하는 전쟁 범죄임을 밝혀내고 국제적인 여론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학생법정은 법이 가지는 한계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판단기준까지도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법정의 틀에 담기기 힘든 목소리는 과감히 우리가 만든 틀 안에서 풀어낼 것이다.



학생법정은 어떻게 준비되나요?

정대협과 이화여성위원회, 전국여대생대표자 협의회를 비롯한 대학내 여성운동단위들이 모여 99년 초에 학생법정 준비를 위한 학생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학생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세미나, 수요시위 참가, 학생법정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8월에는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전쟁과 여성, 한일 학생 연대 캠프'를 기획하였습니다. 한일 캠프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기간의 운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위원회는 이 문제에 관심있는 단위 혹은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요시위, 그리고 수요시위 교양학교



앞서 밝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 범국제학생법정과 함께 계속되고 있는 외침중의 하나로 수요시위라는 것이 있다. '수요시위? 그게 뭐지?' 라고 물으실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다.

수요시위는 92년 1월 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매주 수요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시위는 8년이라는 세월을 넘기며 370차를 넘어서었다. 그렇다고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의 시민들과 70을 넘기신 할머니들 자신이 시위 참가단의 전부다. 그러나 이들의 의지만큼은 대사관 철문을 녹여 버릴 만큼 강렬하다. 온갖 굵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번의 쉼도 없이 계속된 370차라는 횟수가 이들의 의지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만큼 이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해결은 절실한 것이다.

이화 여성위원회에서는 7월 8, 9일, 그리고 15, 16일에 걸쳐 '수요시위 교양학교'를 진행하였다. 이번 교양학교는

8월 4일 예정이었던 이화여위의 수요시위 주관 이전에 이화내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알리고 이를 이화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정신대/종군 '위안부' 등으로 불리는 일본군 성노예의 용어를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종군 '위안부'는 패전 전의 일본 군부가 사용했던 말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단어에서 모순을 발견할 수 있었다. '누가 누구를 위안' 했단 말인가? '군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위안'을 제공했던 말인가? 우리는 '위안부'를 성노예로 재정의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유린당하고 개인의 자유마저 빼앗긴, 오로지 남성들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성적 도구로만 존재했던 그녀들은 분명 성노예였다.

두 번째로 할머니들의 증언과 여러 자료들을 통해 실상을 알아보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을 고민해 보았다. 과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만적인 일본놈들'이 '조선의 순결한 처녀'들을 더럽힌 문제였을까? 그렇지 않다. 단순히 민족 문제로 볼 수는 없었다. 그러기엔 너무나 비슷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르완다, 유고슬라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보스니아 등등 전세계 여러곳에서 일본군 성노예와 유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 아니, 아주 가깝게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 '그럼 어떻게 봐야하지?' 결론은 이러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지금도 일어나며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여성 억압과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입장을 고민한 뒤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단순한 배상만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여성 억압과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라면 여성 억압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수요시위 교양학교와 수요시위 참가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할머니로부터의 편지]

여보게나 젊은이들 우리의 후손에게 확실하고 바른 교육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빈다우...

평생도록 한이 맺힌 여인들의 한 많은 사연 붙잡으려 해도 붙잡지 못하니 세월이다.

내 가슴에 맺혀있는 말 한마디 못한 채 백발이 되었네.

이제는 힘이 다 빠져 견디기도 어렵구나.

여보게나 젊은이들, 말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려는 정신대 늙은이를 영원히 가기 전에 한 맺힌 사연들을 영원히 가기 전에 한 맺힌 사연들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지 않겠나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국으로 만들었던 일본정부 그 무섭고 악랄한 왜놈들에게 눈과 발을, 일본놈들 힘있는 우리 한국 자식을 빼앗기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살아야 했던 우리 부모님들, 고무신도 아닌 질신에 무명치마 무명저고리 순박한 우리 한국에 여인네를 강제로 끌어들여 그 멀고 험악한 전쟁터에 성노예로 끌고 다녔던 일본군 군인들 자기네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병들어 죽게 되면 그대로 땅속에 묻어버린 악랄하고 잔인한 일본군 군인들 구사일생으로 배 나라 조국 땅에 왔건만 동방 예의자국이라는 우리나라 한국이름에 부모형제가 살고 있는 배 집 대문안에 발도 들이지 못한채 행여 누가 알까 두려워 하소연 한마디 못하고 살아왔네.

자식에 빼앗기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채 사시다 횡병으로 세상을 떠나가신 우리 어머니 14살 어린나이에 끌려 다니다 목숨만 부자하고 살아 왔건만 여인의 몸에는 성병으로 시달려 처참하게 살았네.

그래도 여자 구실 해보려고 자식 낳기 원했건만 그 몸에서 태어난 불쌍한 딸아이 어미의 병으로 철장장애아가 되어났네.

일본놈의 전쟁으로 줄줄이 삼 사대가 피맺힌 한만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하나

이 원수를 그 누가 갚겠나 여보게나 젊은이들.

이렇게 우리 한국에 여인네를 우리나라 대용량은 알고 계시는지 한일 기본조약에 들어있지도 않은 정신대 할머니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좌절감을 아니 느낄 수 없는 힘 있는 여인네들 우리 한국을 식민지 나라로 만들었던 그 자들, 황금에 눈이 뒤집혀 한일 조약을 허수아비들처럼 매친 그자들은 역사의 적, 절대로 동반자는 안돼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당신네 조상이 저지른 일미기에 정부가 저지른 크나큰 범죄를 스스로 사죄하고 자기네 조상 대대로 역사에 수모를 무릎꿇고 빌어야 할 것이다.

여보게나 젊은이들, 우리 한국의 자존심 우리 여성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에 꼭 기록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확실하고 바른 교육을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부락을 이렇게 빈다우. 2000년이 오기 전에.

김윤심 할머니

이 편지는 일본군 성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던 김윤심 할머니께서 학생법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일학생연대 캠프를 기하여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당신의 의심을 찬양하며, 그대의 상상력에 불을 당겨라

90년대 이후 대학내 여성운동의 독자적 흐름이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소통과 연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98년, 여성운동의 방향성 모색과 다양한 흐름의 생성이라는 기조로 여성연대한판이 처음으로 기획되었다. 그리고 98 여성연대한판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들을 던져주었다. 여성주의란 무엇이며, 전국의 여성운동단위들간의 소통과 연대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99 여성연대한판은 이러한 고민들을 풀어내고자 기획되었다. 소통과 논쟁의 복원-여성주의적 방법론과 조직론, 대학내 여성주의자들간의 친밀감 쌓기, 전국 여성운동 단위들간의 연대망 구축을 주제로 기획된 99한판은 전국 50여개 단위와 여성운동에 관심있는 친구들이 모인 '한판'이었다.

새내기가 체험한 3일간의 '한판'

잠이 잡히지 않았어. 한판? 대체 뭐하는 거지? 난 아직 여성주의에 대해 아는 것도 많지 않은데... 내가 거기에 가도 되는 걸까?

한판 포스터를 본 대부분의 이화인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왠지 '우리'가 아닌 '그들'인것만 같은 느낌.

첫날은 young feminist로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mind map시간을 가졌어. 이는 여성, 혹은 여성운동가로서의 나를 억압했던 상황을 한판에 참여한 친구들이 직접, 즉흥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연극을 통해 보고, 느끼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어. 우리는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경험했던 불편함, 억압, 분노,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에 지지와 연대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스스로 없이 풀어내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라는 명제(?)를 다시한번 몸으로 느끼게 되었지.

둘째날은 여성주의적 조직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토론회와 여성운동 방법론이라는 이름 하에 대학내 여성노동운동과 반성폭력 운동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가졌어. 타지역, 타대의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회를 통해 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여성운동의 대중적 담론화에 대한 고민을 했어.

이날 밤 9시가 되어서는 운동장에 둘러 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팀에 주어진 이미지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재해석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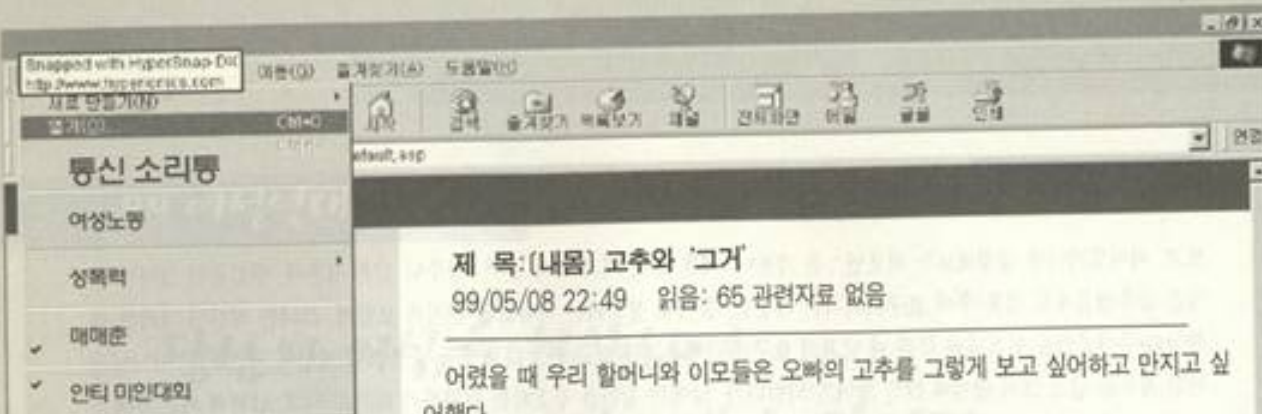
보고, 페미토피아를 상정해보는 퍼포먼스를 가졌어. 예를 들어 내가 속해 있던 '공주팀' 같은 경우에, 주인공인 그녀의 설정은 공주였음에도 결혼 후에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동시에 상충되는 역할들을 연기해 보았어. 그녀는 자신이 그러한 역할극의 주인공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남편의 요구대로 때론 화환같은 목소리로 웃는 순종적인 애인이 되었다가, 어느날은 야한 잠옷을 입고 그의 발치에 앉은 창녀가 되었다가, 낮에는 집안을 청소하는 빗자루가 되기도 하고, 남편의 퇴근 후에는 신문을 보고 앉은 그의 커피잔이 되어야 하는... 그녀가 그런 자신을 자각해 가는 과정을 연기한 거야. 모두들 얼굴에 기이한 페인팅을 하고, 그러한 즉석공연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느새 익숙들로 점철된 가부장제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었어. 퍼포먼스가 끝난 후에는 살가운 뒷풀이가 있었고, 운동장에 누워 때마침 쏟아지던 빗줄기를 맞으며, 달이 이슬 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많은 걸 배우고, 느꼈어.

셋째날 제법 늦잠을 잔 우리는 짙은 입안에 김치찌개를 떠넣으며, 어제 있었던 상황극 총화를 구상하고 있었어.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총화는 처음에 지냈던 기대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자보에 써서 공개하는, 그간의 우리의 운동과 고민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지.

요즘을 일련의 유행처럼 통용되고 있긴 하지만 페미니즘이란 용어를 접하는 우리에게 '너무 급진적이다'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선입견들만 산재해 있고, 당장 여성연대한판이라 함은 왠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여성주의자들만의 축제인줄 알지만, 아니야. 페미니즘이 아주 소소한 일상에까지 침투해 있는 문제이듯이 한판도 이화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편안한 자리야. 내년 2000년 여성연대한판엔 함께 가보는게 어떨까...

느껴보는 거야. 그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호흡하는지... 다음 아닌 우리들이 바뀌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통신소리통

제목:(내물) 고추와 '그것'

99/05/08 22:49 읽음: 65 관련자료 없음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와 이모들은 오빠의 고추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만지고 싶어했다.

'얼마나 컸나 보자' '고추 따먹자.'

오빠의 고추는 자랑거리였고 얼마만큼의 성장이 늘 궁금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성기에 대한 기대는 늘 달랐다.

'냄새 안나게 자주 씻어라.' '밀을 자주 닦아야 똑똑한 애 낳는데'

변변치 않은 이름 하나 가지지 못했던 나의 '그것' 은 걱정거리였다.

자랑거리와 걱정거리 이 차이에서 시작하는 것 같다.

누군가 싸놓고 간 통처럼 밤 사이 벽에 낙서된 '그것' 의 그림과 '보지', '잠지' 는 부끄러움이었지

한번도 진지하게 나의 '그것' 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지 못했다.

제목: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는

99/08/05 20:35 읽음: 38 관련자료 없음

밥상 앞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 할머니들이 또 우리 엄마들이 좋은 반찬 맛있는 반찬을 슬쩍 남편이나 아들에게로 미는 것을 보아온 우리들은 그 '밥상의 정치학' 을 일찌감치 알아버린 우리들은 거기에 참 많이 익숙해 있는 게 사실이다.

얼마 전 가족과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 엄마가 일부러 인드시는 거 같아서 엄마 드시라고 나도 일부러 먹지 않고 남겨둔 것을 우리 오빠가 귀신같이 채갔다.

우리들이 체득한 밥상 앞에서의 법칙을 나는 특별히 '배려' 라고 부르고 싶다.

기본적으로 받는 데에만 익숙한 남자들은 '배려' 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일반화시켜 버리는 거 참 싫지만 정말 그런 거 같다.

바보같이 질질짜고 자기 그릇하나 못챙기고 맨날 담고 참고 또 참고 이게 착한 여자는 아니다.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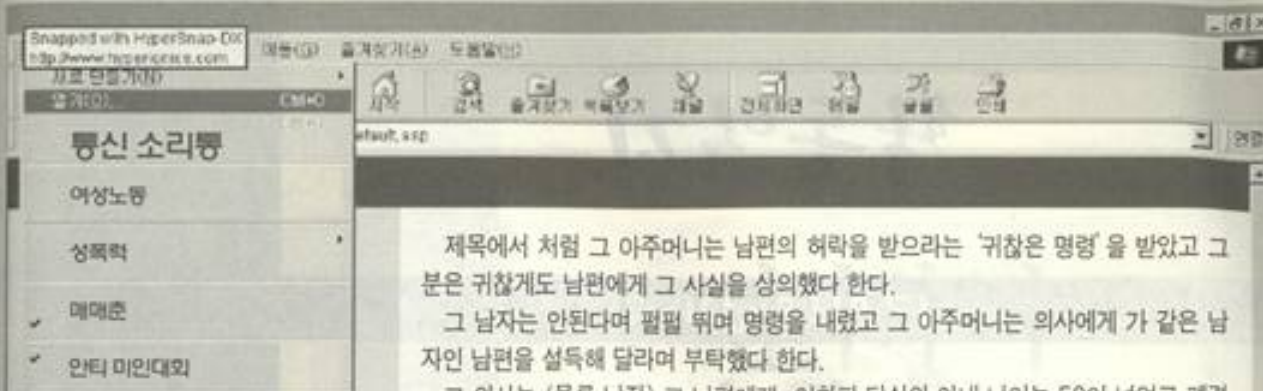
참 아름다운 덕목이다.

강요된 희생이 아니라면 자기 밥그릇은 꼭 챙긴다면 한번쯤 물러나는 젓가락질은 참 아름답다.

제목:유방축소수술! 남편의 허락을 받으세요

99/07/16 05:30 읽음:101 관련자료 없음

엄마 친구중 한 분이 얼마 전 평생의 한이었던 유방 축소 수술을 하기 위해 중앙병원 성형외과를 갔었다.



여성들의 일상은 언제나 가부장제의 억압에 노출되어있다. 그러기에 가부장제의 억압을 거부하고 여성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시도들은 하나하나가 소중하며 정치적인 것이다.

이 글은 통신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들을 발췌해 낸 것입니다.

제목에서처럼 그 아주머니는 남편의 허락을 받으라는 '귀찮은 명령' 을 받았고 그분은 귀찮게도 남편에게 그 사실을 상의했다 한다.

그 남자는 안된다며 필필 뒤편 명령을 내렸고 그 아주머니는 의사에게 가 같은 남자인 남편을 설득해 달라며 부탁했다 한다.

그 의사는 (물론 남자) 그 남편에게 -어차피 당신의 아내 나이는 50이 넘었고 폐경도 됐습니다. 물론 젖을 먹일 일도 없으니 부인이 그토록 원하시는데 그냥 허락하시죠 -라고 말했다.

황송하게도 허락을 받으신 아주머니는 수술을 하시고 지금은 너무도 발랄하게 뽀뽀를 가자 조르신답니다

제목:여자라고 하는 자각..

99.07.06 12:05:16 조회: 92

아래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자신이 '여자' 라고 하는 자각을 안하고, 못하고 사는 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

글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 적은 언제였을까

아무래도 외모로 판명되는 모습..

치마를 입는 모습

나이가 들어 생리를 하게 되었을때

남자를 만나 가슴이 두근거렸을때

그렇게만 느끼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렇게만 느끼도록 우리는 가르쳐져 왔어

내가 여자라서 부당하다고 느낀 것은 아마도 회사에 입사했을 때였을 거야. 같은 학력에 나이가 같은 남성동료의 임금이 나보다 높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느꼈던 그 야릇한 분노와 배신감이러니...

그리고, 내게 강요되어지는 부드러움과 엄마같은 심성. 즉, 단체 활동하면서 남성동지들을 엄마같이 챙겨주는 여자 선배들을 보면서 느꼈던 의문들... 행사때마다 부엌에서 살던 - 총회같은 중요한 행사인데도 하루종일 뒷풀이 음식을 장만하느라 부엌에서 나오지 않던 선배언니들 - 을 보면서 얼굴이 썩그러 졌던 기억.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 갔고 운동을 하면서 새벽에 귀가할 때 들었던 엄마와 할머니의 걱정 심야버스안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성희롱. 심지어는 택시 기사조차 나에게 '내 여동생 같으면 다리를 뿌러뜨려 버리겠다' 고 웃으면서 말했었지...

그런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 가면서 여성 서적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애. 사회에서는 내게 생물학적인 여자만을 강요한다는 생각 -지금도 내게 왜 애는 안낳냐고 강요하는 시선 같은것- 그러나 내가 진정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여성' 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이젠 너무 처절한 거 같애...

활동일지

4대 이화여성위원회



- 98년 9월 반성폭력 주간 - 거리전
제 3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 수립 촉구대회
- 10월 제 4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 수립 촉구대회
- 11월 군가산제 반대 서명운동과 여성노동권 확보 제기를 위한 자료집 발간
- 12월 침묵에 관한 의문 상영 및 토론회
제 5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 수립 촉구대회
- 99년 1월 기활학교 및 기지촌 현장활동
- 1월 수요시위 교양학교 및 수요시위 주관
2000년 학생법정 준비위원회 활동 시작
- 3월 4회 페미니즘 문화제 개최
- 4월 신규여성실업문제 해결과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메이데이 기획단 '여/聲' 활동전개
- 5월 반성폭력 주간 - 거리전 및 자료집 배포
인터넷 상의 이대 포르노 대응 활동
군가산제 반대시위 - 7급 공무원 시험장 앞에서
연대모임 미인대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KILL' 구성 및 미인대회 반대시위 전개
대동제 중 새움터 연대 장터
대동제 중 민중연대한마당에서 여성노동의 현실에 관한 그림자극 공연
고대생 집단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 전개
- 6월 연대 통신동호회 익명게시판 사건 대응
군가산제 반대시위 - 9급 공무원 시험장 앞에서
- 7월 수요시위 교양학교 개최
2회 여성연대 한판 기획 및 참가
- 8월 372차 수요시위 주관
전쟁과 여성 한일 학생 연대 캠프 기획 및 참가
- 9월 3차성징 2호 발간
5대 이화여성위원회 발족

그 외 지속적인 연대활동으로
악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여성노동모임(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활동일지

활동일지

활동일지

활동일지

활동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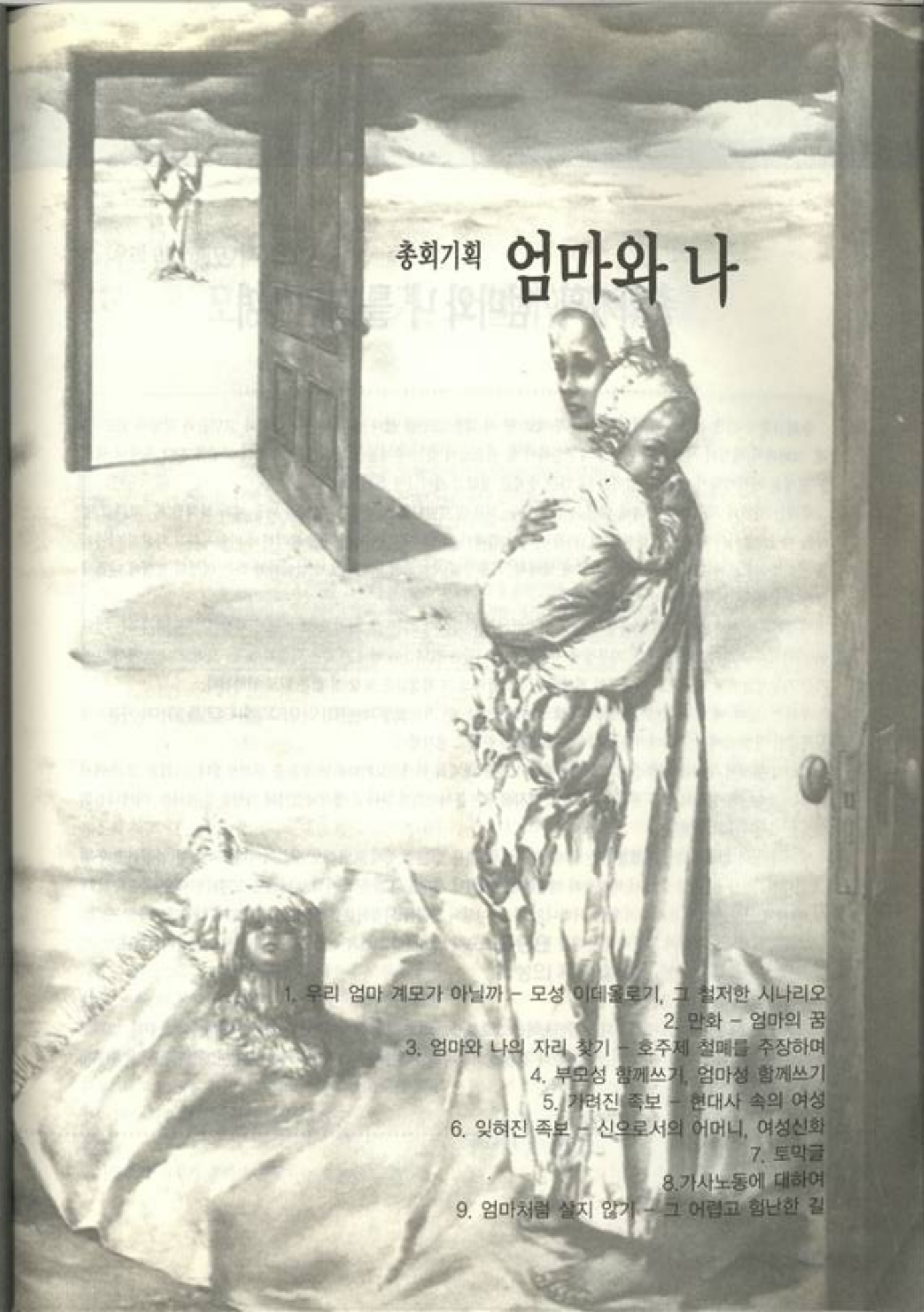
활동일지

활동일지

활동일지

활동일지

총회기획 엄마와 나



1. 우리 엄마 계모가 아닐까 - 모성 이데올로기, 그 철저한 시나리오
2. 만화 - 엄마의 꿈
3. 엄마와 나의 자리 찾기 - 호주제 철폐를 주장하며
4. 부모성 함께쓰기, 엄마성 함께쓰기
5. 가려진 족보 - 현대사 속의 여성
6. 잊혀진 족보 - 신으로서의 어머니, 여성신화
7. 토막글
8. 가사노동에 대하여
9. 엄마처럼 살지 않기 - 그 어렵고 험난한 길

총회기획 '엄마와 나' 를 고민하며

총회기획 논의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주제로 할 지 많은 고민을 했다. 이화인들의 경험과 고민들과 맞닿아 있는 주제, 그러면서 여성의 시선으로 우리가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주제들을 논의한 끝에 함께 고민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모성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엄마와 나' 라는 주제를 정하고 세미나에 들어갔다.

우리는 엄마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푸는 것으로 세미나를 시작했다. 엄마와 싸울 때와 화해할 때, 그리고 엄마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가족 속에서 엄마가 희생되어가는 과정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음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엄마'에 대해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하는 여성의 경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잊고 있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출산과 양육을 선택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 가부장제 사회의 어머니들은 그녀들이 해내는 많은 역할과 노동, 그리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가능성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그 희생들은 보잘 것 없는 일로 폄하된다.

우리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풀기 위해 엄마를 조금은 먼 거리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와 엄마와 자신과의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풀어내기를 동시에 시도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부장제가 여성들에게 모성을 내재화 이데올로기화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의 짐을 진 채 족보에서, 역사에서는 묻혀지지만 한다고 생각되었기에 여성들의 역사를, 어머니들의 역사를 복원해내고자 했다.

엄마의 성이 없어지고 부계혈통만을 유지하고 남녀차별을 낳는 호주제를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족보를 복원하고자 했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성들의 억압된 삶, 어머니 세대들의 삶은 축적되지 않음을 고민하면서 현대사 속의 여성, 그리고 신화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어머니의 역사, 여성의 신화를 되짚어보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와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여성으로서 느껴왔던 고민과 경험들을 수기 형식으로 풀어보았다.

우리는 흔히 어머니의 삶을 잊곤 한다.

그러나 가부장제 사회에서 강요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만 읽히는 모성을 이제는 다시 한 번 반문해야만 한다. 그리고 묻혀졌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어머니들의 경험을 되살리고 우리에게 이어지는 그 경험들을, 그 억압들을 이제는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엄마 계모가 아닐까?

모성 이데올로기, 그 철저한 시나리오.

나는 어릴 때 가끔 엄마의 행동을 보며
계모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TV속에서, 혹은 동화 속에서 등장하는 마냥 인자하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엄마와 다른 우리 엄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러나 TV속이나 동화 속에 나오는 어머니들이말로 비현실 적이지 않은가.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을 하고 어머니 자신의 존재는
부정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은 아닐진대, 어릴 때부터 보아온 매체들은
나에게 그러한 오해를 시켜 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이미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양보하기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을 향하여
'우리 엄마 계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왜 해야 했던 것일까.

모성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는 이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희생과 자녀에 대한 사랑을 미화하고 칭송하는 많은 말들을 들어왔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의 사랑이 낳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 등 많은 일화들을 들어왔다. 어머니와 관련된 짧은 문장들을 누구나 쉽사리 기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모성은 여성의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의무'.....

우리는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모성을 신비화하고 여성의 본능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신화 속에 감염되어야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실인가. 모성은 여성의 본능이며, 그래서 출산부터 양육까지 모든 의무는 여성이 자연스레 지는 것인가. 그리고 중국에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는 것이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미덕 일까.

가부장적 사회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는 이제 다른 시선으로 어머니를, 그리고 모성 이데올로기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모성이 여성에게 작용하는 억압들을, 그리고 사회가 모성을 신화화하고 여성에게 강요하는 과정들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 그리고 미래에 어머니가 될 지도 모르는 나, 그리고 또 어머니가 될 나의 딸들의 관계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생각해보자.

모성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본능이 아니다!

모성은 흔히 인종과 역사를 초월하는 여성의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사고된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어머니가 되어야 하며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하는 것으로 사고된다. 그러나 역사적인 맥락이나 지역, 인종별 차이를 살펴 보더라도 모성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본능적인 것이 아니다. 친모가 유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오히려 유모와 귀

죽 자녀간의 유대가 생기던 귀족사회를 생각해봐도 우리가 본능으로 여기던 모성의 개념이 이데올로기일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먼 과거나 다른 사회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규정된 모성이나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자신에게는 생겨나지 않아 갈등하는 사례가 많이 존재한다. 이는 모성이 제도적으로 규정된 것이며 모든 여성에게 동일한 본능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모성은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하는 철저한 이데올로기이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평생을 받쳐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부장적인 사회가 만들어낸 신화이며 시나리오일 뿐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 시나리오에 맞춘 삶을 강요당한다.

그러나 모성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성의 필수불가결한 의무도, 본능도 아니다. 그것은 가부장적 사회가 부계혈통의 효과적인 계승을 수단으로서, 여성을 억압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모성을 여성에게 마치 자연스러운 현상인 듯 가감하는 것일 뿐이다.

가부장제에 의해 강요되는 모성이데올로기, 그 철저한 시나리오

하나, 여성은 누구나 어머니가 되어야 하며 그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 와야 했다. 여성이라면 당연히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의 공식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데올로기나 혐의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철저히 내재화되었다.

아마도 월경을 시작할 때 '이제 진정한 여자가 되었다'는 축하의 인사를 들은 여성들이 많을 것이다. 월경을 어

머니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이어서 사고하며 월경하는 여성,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만이 진정한 여성이라고 말하는 부모나 성교육 지침서, 그리고 폐경한 여자를 '더 이상 여자가 아니다'라고 비하하는 사고들은 결국 여성이라면 어머니가 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진정한 여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재화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머니가 될 몸으로 간주받은 채 끊임없이 통제를 받는다. 흡연, 월경, 낙태 등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무시된 채 어머니가 될 준비를 강요받는다.

그러나 출산이 왜 모든 여성의 필수적인 의무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가부장제의 대답은 '원래 여자의 의무'라는 식의 궁색한 대답이나 부계혈통의 대를 잇는 의무를 이야기하는 정도이다.

결국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되기를 강요받으며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게 되며 어머니가 된 후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과 회생을 감수해야만 한다. 혹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여자 취급을 받게 되거나,

그러나 모성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성의 필수불가결한 의무도, 본능도 아니다. 그것은 가부장적 사회가 부계혈통의 효과적인 계승을 수단으로서, 여성을 억압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모성을 여성에게 마치 자연스러운 현상인 듯 가감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자신의 몸이 하나의 몸이기 이전에 인큐베이터로서 남성들에 의해 통제되며 출산을 강요받는다.

둘, 모든 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성이 지야한다고 말한다.

출산, 양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희생과 봉사는 여성의 선택 이전에 의무로 강요받을 뿐 아니라 그 정당하고 훌륭한 수행에 대한 평가절하까지 감수해야만 한다. 흔히 능력없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써 쓰이는 '집에서 애나 보지'라는 말은 사회가 여성들의 양육을 어떻게 평가하고 비하하는 지를 잘 드러내어 준다.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의 여성의 선택을 배제한 가부장적 사회는 한편으로 양육을 위한 여성들의 엄청난 희생과 경제비용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양육, 그리고 여성의 일을 평가절하한다. 그리고 가끔 '위대한 어머니', '따뜻한 고향



모성은 결코 모든 여성들의 본능이 아니며 출산에서 양육까지 모성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에게 강요되는 모든 의무는 여성들이 담당할 자연스러운 의무가 아니다. 여성들은 어머니가 될 권리가 있듯이 어머니가 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권리도 가져야 한다.

출산에 대한 당위를 강요하는 시나리오는 양육에 대한 당위, 자신의 회생에 대한 당위까지 이어진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물론 양육까지 완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어머니의 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여성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 20대 즈음에 아이를 낳고 그 이후의 삶의 모든 투자를 아이를 위해 하면서 자신의 회생을 감수하는 것은 몇몇 여성의 경우가 아니지 않은가. 그러나 출산이 곧 양육의 의무까지 남아야 할 당위적 필요성이 사실상 존재하는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양육을 여성들만이 전담하는 것은 가부장 사회가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못된다. 가족구성원들, 그리고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양육에 대한 의무들이 '모성'이라는 이름 하에 어머니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셋, 양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고 보잘 것 없는 일로 비하된다.

출산, 양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희생과 봉사는 여성의 선택 이전에 의무로 강요받을 뿐 아니라 그 정당하고 훌륭한 수행에 대한 평가절하까지 감수해야만 한다. 흔히 능력없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써 쓰이는 '집에서 애나 보지'라는 말은 사회가 여성들의 양육을 어떻게 평가하고 비하하는 지를 잘 드러내어 준다.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의 여성의 선택을 배제한 가부장적 사회는 한편으로 양육을 위한 여성들의 엄청난 희생과 경제비용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양육, 그리고 여성의 일을 평가절하한다. 그리고 가끔 '위대한 어머니', '따뜻한 고향

의 품, 어머니' 등의 말들을 위로처럼 던져주며 못본채 한다.

이제, 여성의 시선으로 모성의 역사를 새롭게 쓰자.

모성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려면 물론 어머니들의 모든 가능성이나 역할들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다.

문제는 모든 여성에게 모성이 강요되며 그래서 모든 여성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머니가 되고 자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기를, 그리고 그 회생을 자신의 '즐겁고 훌륭한 의무'로 사고하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강요를 하면서 '여성의 위대함'으로 간혹 칭송하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역할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시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모성은 결코 모든 여성들의 본능이 아니며 출산에서 양육까지 모성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에게 강요되는 모든 의무는 여성들이 담당할 자연스러운 의무가 아니다. 여성들은 어머니가 될 권리가 있듯이 어머니가 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권리도 가져야 한다. 모성이데올로기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모성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가치매김이 되어야 한다. 출산과 양육에 소비되는 시간과 회생, 그리고 많은 노력을 수반해야 가능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이제는 '집에서 애나 보지'라는 말로 비하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엄마와 나의 자리 찾기

호주제 철폐를 주장하며

호주제란 무엇인가?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중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위의 이데올로기를 유지시키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이다.¹⁾ 역사적으로 호주제는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구분하고 확인하기 위한 국가 통제 체제였다. 그러나 시기별로 목적이나 상속 혹은 승계 순위 등은 차이를 보인다. 삼국시대에는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호구조사에 불과했다면, 고려사회는 신분을 바탕으로 양반에게는 요역을 면제받는 면역증으로 상민에게는 징병이나 부역을 부과하기 위한 문서였다. 그러나 순위에 있어서는 모계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가족의 대표자로 부부를 두어 자녀보다 배우자가 우선하였다. 조선은 고려사회와 마찬가지로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유교의 영향으로 여계를 배제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조선 초기에 중국의 종법제와 결합해 가부장제를 더욱 강화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적인 호주제의 모체도인 종법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이후인 1955년부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호적을 기반으로 하는 호주제는 일제 식민시대의 호적제도가 이식된 것이다. 일제시대의 호주제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 식민지배, 수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



해 행해진 것이었다. 1922년 조선호적령을 공포해 호주를 '가(家)'에 일어나는 모든 신분관계변동을 신고하는 의무자로 규정하여 징병, 징세, 독립군 색출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독립 이후, 호주제는 아무런 재고 없이 이어졌다.

호주제의 문제점은 명쾌하게 드러난다. 바로 법이 드러내는 여성차별,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한다.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의 문제점은 명쾌하게 드러난다. 바로 법이 드러내는 여성차별,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한다. 법전을 읽다보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중의 하나는 바로 한국법은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지향은

있되 방법은 모른다. 특히 여성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말이다. 현재로서 법은 또 하나의 남성일 뿐이다.

그러면 호주제가 어떻게 여성차별을 드러내는지 알아보고 하자. 민법상 '가(家)'의 구성은 호주와 가족이다. 호주는 이를 그대로 가(家)의 대표자이며 장(長)이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원칙적으로 호주는 남계혈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성은 언제나 가족원의 지위에 머물 수 밖에 없고, 나아가서 이등시민이 될 수밖에 없음을 확고히 한다. 이러한 남성중심의 권위주의는 명백히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호주제는 호주의 승계 순위에서 차별을 드러낸다. 호주승계순위는

- 1) 직계비속 남자
- 2)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 3) 처
- 4) 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 5)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민법 984조)

이다. 다시 말하면 남편-아들-손자-미혼의 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인 셈이다.

둘째로, 혼인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는 입부혼을 제외하고 남편을 호주로 하게 된다. 그리고 이혼시에는 여성은 그 호적에서 제적된다. 주인은 언제나 남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혼시에는 당연히 재혼한 남성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있다.

셋째로, 부모로서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이 있다. 자녀는 출생 또는 인지로부터 당연히 부가에 입적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친가에 복귀하거나 일가를 창립하게 되는데, 여성이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두기를 원할 경우에도 자녀를 입적시킬 수 없게 하고 부의 호적에 남아 있게 한다. 그리고 여성이 재혼할 시에 자녀를 양부의 호적에 입적케 하려면 생부의 동의와 양부의 동의를 동시에 받아야만 한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 혼인 외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할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

지 않는다. 즉, 자녀에 대한 권리가 남성과는 다른 것이다.

덧붙이자면 남성을 호주로 하는 '가(家)'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보는 법과 사회 관념은 여호주의 가(家)에 입적해 있는 자녀를 차별하여 모자가정을 더욱 살기 힘들게 하고 있다. 또한 이는 세법, 사회복지관련법 등에도 영향을 미쳐 제도상으로 관념상으로 이중, 삼중의 억압을 행사하고 있다.

유럽과 여성주의자들의 대립

유럽들과 보수남성들의 호주제 존치 주장의 근거는 바로 우리 고유의 전통과 윤리 및 국민의 정서 등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부장이 없는 가족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고유의 전통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전통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많은 경우, 전통이나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전통이나 관습으로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헌법이념에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전통과 윤리 등은 그 자체로 돌지연정 법으로 강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이다. 법은 자기모순을 해결하고 인간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가치 이념에 따라 제도의 역할을 오히려 수행해야 한다.

호주제 존폐의 논쟁은 동성동본 헌법 불합치 판결의 경

그러나 고유의 전통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전통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많은 경우, 전통이나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전통이나 관습으로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헌법이념에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할 필요는 전혀 없다.

주 1) 호주제도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이화숙

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곧, 헌법의 가치해석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이는 평등의 원리와 전통의 법 반영에 있어 무엇을 우선 순위에 둘 것인가의 문제로 환원된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 수준이 법보다 앞서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헌법의 최고 기본원리인 여성의 존엄성과 평등의 원칙을 심히 해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정당성에 대해 재론할 가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호주제 폐지로 인해 공경사상이 허물어지는 것을 걱정하는데 그와 호주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어린 아들 혹은 손자가 어머니를 제치고 호주가 되는 순계 순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여성평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상이 아니다.

그리고 가(家)에 가부장(家父長)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관념은 권위주의에 길들여져 진정한 민주주의를 모르는 자들의 말일 뿐이다.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호주제를 폐지하면 호적관계의 기준이 되어왔던 가적(家籍)이 없어지기 때문에 호적은 새로운 목적과 이념에 따라 새로운 편제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즉, 여성을 배제한 부계중심에서 벗어나고, 권위주의적인 색채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호적은 최소한의 공문서의 역할만을 위해 편제되어야 한다.

현재 연구된 가장 합리적인 호적 편제 방식은 1인 1호적제이다.¹³⁾ 1인 1호적제는 차별을 없애고 개개인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이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신분등기제도이다. 출생과 함께 개인호적이 만들어지며 그 개인이 대표자가 되어 본인의 모든 신분사항을 기록한다. 이는 복잡한 출, 입적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것과 호적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호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호주제를 폐지해 헌법상의 인간 개념에 여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고은광순
-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영아, 1996, 한국여성개발원
- 호주제도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이화숙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myhome.netsgo.com/tcolor/default_main.htm

주 13)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6, 한국여성개발원

부모성 함께 쓰기, 엄마성 함께 쓰기

부모성 함께 쓰기, 혹은 엄마성 함께 쓰기 운동은 1997년 3.8 여성 대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호주제 폐지를 목적으로 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문화 운동입니다.

호주제, 동성동본금혼제도, 부가 입적 제도, 아들이 제사를 모시는 관습, 부계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 등의 우리 사회의 법적 사회 제도적 관습이 남성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더욱더 가부장적 의식구조를 강고히 하고 있어 남아선호사상이 뿌리깊게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남성중심적 가족제도는 사회에서의 여성불평등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종래의 가족관과 관습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성씨제도의 민주화를 주장한다. 여성의 평등한 참여와 합의에 의해 성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은 여성평등사회를 향한 의식 개혁의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의 선언문 (발행)

구체적인 방법은

김막동 + 홍길동 → 김홍@@ (또는 홍김@@)

김홍@@ + 손안## → 김안□□ (또는 홍안□□, 김손□□, 홍손□□)

부성을 앞에 쓰고 모성을 뒤에 써서 자녀에게는 부의 부성, 모의 모성을 사용하게 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모성을 앞에 쓰고 부성을 뒤에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의 성이나 할머니의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 이에 성씨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엄마성을 함께 쓸 수도 있다는 의식 개혁과 호주제 폐지, 부계 중심의 성씨제도의 폐지, 성씨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의식 개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이유 불문하고 엄마성을 내 이름에 넣는다는 것은 묻혀지기 쉬운 엄마의 존재를 그나마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씨란 워낙에 습관적이기 때문에 엄마성을 함께 사용한 성은 금방 익숙해질 것입니다. ~~~~

가려진 족보

현대사 속의 여성

우리가 여성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
: 광주항쟁을 중심으로

권력을 권자들간의 대립과 혈투만이 역사의 교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소수 위인들의 능력과 업적만이 발전의 거름은 아니다. 여성은 언제나 사회적인 약자였기에 사회가 흔들릴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여성들의 역사는 상처투성이다. 세삼 꺼내보기가 고통스러울 만큼 비참한 기억들이 많다. 하지만 상처투성이인 이들의 경험이야말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짚어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처를 주어내기, 강해지기

누구에게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꼭꼭 눌러버리는 일이 한가지쯤은 있을 것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이미 오래 전 일이라고 부정하는 동안 그 웅어리는 단단하게 굳어간다. 묻혀진 과거는 저 밑에서 꿈틀거리다가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할 지도 모른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좌절감, 실망감, 분노, 공포, 후회, 자책감, 슬픔과 같은 감정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불안하고 무력감에 빠진다.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인정할 수 없고,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더 고통스럽다.

자신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을 정리하지 않고 놓아둔다면 또 다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자기 연민과 표

출되지 못한 분노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없다. 자기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야 그는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진정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수만 있다면, 상처 받은 만큼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현대 한국사 속의 여성과 나의 삶

정신대 할머니들의 비참했던 삶에 대해서 알았을 때, 같은 시대, 같은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세상인 듯이 그 존재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던 때를 여성의 살아가는 모습을 접했을 때 한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런 여성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것이다. 차라리 모르고 살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암담함 때문이다.

여성들은 어린 시절 받은 상처들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다. 절망과 분노로부터 벗어나고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다. 한국의 여성사를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적시할 용기가 없어서, 은연하고 망각할 것을 강요하는 힘이 두려워 침묵했던 여성들은 억압과 폭력의 경험들을 되살리면서 스스로 해방될 수 있다. 특수한 시대의 특정한 개인이 불운했던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그들의 삶은 나의 삶과 완전히 단절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집단적인 경험들의 대부분이 묻혀 있는 상태에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

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려 한다면 몇 배의 힘이 들 수밖에 없다. 다양한 역사적 상황 하에서의 여성 경험을 알아보는 것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모색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1980년 5월, 광주
: 여성들의 경험에 주목하여

광주 항쟁은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붕괴된 후 군사 정권을 유지하고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신군부의 계획에 저항한 투쟁이었다. 광주에서 벌어진 만행의 진상과 투쟁의 역사가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10년이 지난 후부터였다. 여성들 역시 그 모든 잔인한 폭력을 경험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험에 주목하여 광주 항쟁을 바라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무차별적인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알려지지 않았다. 많은 여성들이 그때의 상처를 가족에게서조차 이해 받지 못했고, 남편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를 받기 일쑤였다. 항쟁 당시 피해자에게 취해진 의료조치는 남성 세대주를 기초로 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상당한 가족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몇 배나 고통스런 경험을 했다고 한다.¹⁾

정신대 할머니들의 비참했던 삶에 대해서 알았을 때, 같은 시대, 같은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세상인 듯이 그 존재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던 때를 여성의 살아가는 모습을 접했을 때 한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런 여성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것이다. 차라리 모르고 살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암담함 때문이다.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 사회적 저항의 역사를 통하여

광주 항쟁 당시 많은 여성들이 가두 시위, 선전 활동, 헌혈 활동, 물자 제공, 취사 등의 방식으로 항쟁에 참여하였다. 무차별 탄압이 시작된 19일, 여중생, 여고생, 주부, 매춘여성, 할머니들마저도 시위에 참여하였다. 선전활동은 여성들의 활동 중 결정적인 것이었다. 전춘심, 차명숙같은 이들은 개별적으로 가두 방송을 하면서 시위를 이끌었고 '송백회'와 극단 '광대'의 여성 단원들, '들불야학'의 여성들은 조직적인 체계를 만들어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곳곳에 전파로 알리기도 했으며, 기금, 화염병, 의약품 구입 등을 수행했다. 각종의 대자보, 유인물,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은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도청에 부상자를 수송하고 시체를 처리하는 일들을 끝까지 맡아 수행하였다. 25일경 사태가 악화되자 여성들도 총기와 수류탄 사용법을 훈련받기도 하였다.²⁾

여성들이 역사의 주체로서 활동한 것은 광주항쟁만이 아니다. 한국 여성운동의 발전사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민족운동,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 등 상황과 목적은 상이 듯하지만 이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존엄성을 위협하는 폭력에 저항하고자 했고, 그

주 1) 정진성, 「최근 아시아의 무력 갈등과 여성 폭력의 피해: 한국의 경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현상 보고서』, 1999.
2) 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한국가톨릭사회문제연구원, pp. 39-42.
3) 이순희(1994), 『한국현대여성운동사』, 박신서당, pp. 231

한국 현대사 속의 여성 경험을 알아보면서 무거운 마음이 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부담 때문에 외면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나의 삶은 그렇게 비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그럴까. 나와 진정 무관하다면 마음이 무겁지도 않을 것 아닌가.

러한 저항이 여성의 해방과 직결되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 여성운동가들의 글을 보면 여성의 문제에 대한 뚜렷한 문제의식을 기존 사회운동의 문제의식과 결합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녀대중이 일제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희생된 층이라고 규정하고 조선 민족의 사명인 일제의 잔존 세력과 봉건제도에 대한 단호한 투쟁 없이 민족의 완전한 해방은 있을 수 없고 부녀대중의 해방 없이 조선민족의 완전해방이 없다."

한국 여성들의 삶은 언제나 자신이 속한 가정과 계층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광주 항쟁은 그 여성들이 울타리를 깨고 역사적 행위자로서 나서게 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성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인 폭력은 처참하고 절망적인 것이었지만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희생된 것은 아니었다. 각자 가정에만 충실하여 뿔뿔이 흩어져 있던 여성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저항하는 정치적인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때의 의식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자기 책임만을 다하려 하던 한국의 많은 여성들은,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사회적 삶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고 역사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성들로 빠르게 변화해 나갔던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한국 현대사 속의 여성 경험을 알아보면서 무거운 마음이 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부담 때문에 외면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나의 삶은 그렇게 비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그럴까. 나와 진정 무관하다면 마음이 무겁지도 않을 것 아닌가.

나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살았던 시대의 굴레와 상처들은 내 안에 살아있다. 나의 삶은 그들과 다르지만 그 다른 삶은 많은 부분 그들의 경험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든 경험은 모색과 변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광주항쟁을 생각하면서 줄곧 필자의 머리를 떠나지 않은 말은 '여성운동의 대중화'였다. 여성 문제는 일상 곳곳에 스며 있기 때문에 미시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각자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에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조건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교묘하지 않은가? 혼자 고민하고 실천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광주 항쟁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었지만,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성과 남성을 불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광주항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남기고 좌절되었지만 그 이후 모든 사회운동은 5월 항쟁의 이념, 조직, 방법상의 한계와 오류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성장해 나갔다. 오월 항쟁을 보면서 비인간적, 비민주적인 요소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더욱 강해지기도 했다. 여성들에게 광주항쟁은 중요한 전기였다. 의식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운동의 차원에서도 발전이 있었다. 이념과 문제 설정에 있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던 여성운동은 광주항쟁 이후로 대중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변혁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지, 광주항쟁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잊혀진 족보

신으로서의 어머니, 여성 신화

만약에, 당신이 유전자에 아로새겨진 기억들의 힘을 믿고 싶다면, 우리가 배워오고 길러진 순종의 역사만이 여자들의 성염색체에 덧칠되어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는 낙담에 지고 싶지 않다면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그 먼 계보를 따라 올라가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 - 남성신들의 역사(history) 속에서 여성신들은 남성신의 상대자로만 존재했다. 땅과 같이 하늘에서도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언제나 남성인양 나타났고, 여성신이 어쩌다 그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는 신화 역시 바리데기, 당금에기처럼 무수한 억압을 '여자다운' 인내와 침묵으로 견디어 온 모습만을 보여준다. 물론 우리는 바리데기의 경험을 존중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일까?

<선녀들의 나라>

중고등학교 때 소도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잠시 행복한 몽상에 젖어든 적이 있다. 세속의 권력이 끼어들 수 없는 소도, 그 안식처의 이미지를 가진 소도는 여성들의 공간 이리라고 근거도 없이 추측했던 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면 - 무당은 주로 여자가기에 가졌던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삼한 시대의 샤먼은 남성이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씁쓸하게 되게 되었다. 그랬겠지. 언제나 권력은 남성의 것이고, 우월하다고 평가받는 속성은 '남성적인' 것이 되는 세계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 - 남성신들의 역사(history) 속에서 여성신들은 남성신의 상대자로만 존재했다. 땅과 같이 하늘에서도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언제나 남성인양 나타났고, 여성신이 어쩌다 그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는 신화 역시 바리데기, 당금에기처럼 무수한 억압을 '여자다운' 인내와 침묵으로 견디어 온 모습만을 보여준다. 물론 우리는 바리데기의 경험을 존중한다.

그러나 여지껏 알려진 것처럼 삼한 시대의 샤먼이 모두 남성인 것은 아니다. 남성샤먼 집단이 지배했던 곳은 진한이다. 그와 대등하게 변한에서는 여성들만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여성샤먼들의 힘이 있었다. 월궁이라고 불리던 여신전은 여성결사의 중심부로 그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토기들은 여성샤먼들의 집단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여성샤먼 집단의 흔적을 담은 채 흩어져 있는 신화들의 조각을 모아보자. 우리 나라의 전설 속에는 선녀들이 목욕하고 물병을 들고 나물을 캐는 이야기들이 있다. 이때 목욕은 목욕재계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적인 풍속을 보여주는 말이며 나물을 캐는 것으로 비하된 선녀들의 활동은 실상 약초를 캐는 활동이었음을, 그리고 물병은 선녀들의 묘약의 상징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우물 곁에서 발견된 아기로만 배워온 박혁거세 탄생설화의 뒷편에는 남편 없이 혁거세를 낳은 파소라는 여인이 존재한다. 파소는 뒷날 선도성모라는 이름으로 중국

이 고대의 여성경사집단에 가해진 횡포에서 현재 한국의 여성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화에 대한 숭한 공격들을 읽어낼 수 있다면 지나친 비약인 걸까. 그러나 수많은 여성신화 중 '선녀들의 나라'를 선택한 것은 남성들이 역사의 주도권을 장악한 세상에서 여대의 유의미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과 서역까지 포괄하는 고대의 동방세계에서 널리 숭상되었다. 선도성모는 선녀들에게 점을 치는 법과 악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또한 신라에서는 해적지모라는 여신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으나 이들이 당시 대지의 여신(神母)였으며 그녀를 따르던 많은 여성들과 함께 월궁이라 불리던 여성결사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탈해왕 탄생설화에는 탈해의 어머니가 적녀국(積女國)의 왕녀라는 언급이 있다. 이 적녀국에 대해 아는 바는 없지만 그 이름에서 다행스런이 여성집단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적녀란 여자를 모아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문헌에 따르면 북옥제라는 동이족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는 바닷속에 여자들만의 나라가 있다고 쓰여있다. 이 여인국에는 선녀들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은 보기만해도 아들이 태어난다고 한다. 후일 남성중심적 역사의 왜곡이 낳았으리라 추측되는 '아들'이라는 단어는 무시하고 생명탄생의 장소로서의 '우물'을 살펴보자. 생명층에서 보듯이 고대 지하신전의 내



부구조는 우물처럼 생겼다. 일본 신화에서도 용궁 뒷뜰에 있는 우물에서 선녀가 한 남자와 만나 일본 신대(新代)역사의 시원을 연다. 우물은 여성신전으로 생명탄생-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곳이었으리라.

여기서 잠시 기존 신화에 편지를 걸어 보는 것은 어떨까. 앞서 서술한 일본의 신화에는 우물 옆에 나무가 서있다. 대부분 지역의 신화에서는 나무가 하늘과 땅을 잇는 주술적 기능을 한다. 그리스 신화의 올리브 나무와 시베리아의 신수, 단군 신화의 신단수등이 대표적 예이다. 소도의 솟대와 더불어 그 나무들은 남성신들의 거주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나무와 쌍을 이뤘을. 바다와 땅을 잇는 여신들의 거주지 우물에 대한 신화는 모두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이 우물신전-월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몇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그 유명한, 달에서 방아를 쥘는 토끼 이야기가 있다. 여기서 방아로 악초를 쥘었을 달의 선녀가 토끼로 전이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토끼는 달과 어울리지 않는 양(陽)의 동물이다. 음(陰)의 동물로 유명한 것은 밤에 그 용명을 떨치는 호랑이다. 호랑이는 밤에 한쪽 눈으로 빛을 쏘면서 다른 눈을 사물을 본다고 한다고 전해지는데 그 호랑이의 눈빛은 달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호랑이의 위골이라는 뼈는 그믐달일 때는 겨드랑이 밑에 있다가 보름달이 되면 이마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등 호랑이의 전설은 많은 부분 달과 연관이 되어 있다. (우리의 조상 후보에서 탈락되었던, 단군신화의 호랑이를 기억

하는지, 단군신화의 남성중심성은 다음 장 - 태모신 이야기에서 좀더 자세히 풀어질 것이다.)

그러나 변한이 전한에게 무를 꿰고, 지모신의 상징인 현무와 달의 두꺼비를 섬기던 부여가 남성성의 상징인 태양과 새새발 까마귀를 내건 고구려에게 패배하고, 남성지배의 역사가 점차 단단해지면서, 이 독립적인 선녀들의 나라는 남성신들의 '기름조' 역할 짬을 하는 모임으로 격하된다. 또한 끝끝내 대항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선녀들에게

는 '나팔녀' '용녀'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불교신화에서 이들은 매우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되었다.

이 고대의 여성경사집단에 가해진 횡포에서 현재 한국의 여성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화에 대한 숭한 공격들을 읽어낼 수 있다면 지나친 비약인 걸까. 그러나 수많은 여성신화 중 '선녀들의 나라'를 선택한 것은 남성들이 역사의 주도권을 장악한 세상에서 여대의 유의미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성이 같은 여성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무시되는 여성들의 문



화를 창조해내는 역할을 지니는 여대라는 공간에서, 남성지배가 점차 강해지던 시기의 저항으로도 읽을 수 있는, 어쩌면 여성권력의 마지막 장이었던 '선녀들의 나라'를 되짚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남성신의 수발을 들며 그들을 위해 웃음을 뿌리는 모습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녀들을, 의존적이며 유약하며 적당히 색시하게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선녀들을, 신화의 뒷배경에 화사한 꽃무늬처럼 처리된 선녀들의 잊혀진 역사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

더불어 생각해야 할 것은 선녀의 모성은 흔히 생각되는 것처럼 금기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권력의 일부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이다. 알(혹은 알과 같은 의미인 상자)을 들고 가고 있는 고분속의 수많은 선녀 벽화들과 우물에 얹힌 탄생설화들에서 선녀들의 어머니됨을 읽을 수 있다. 그 현재 여성들의 피 속에 숨겨져 내려오고 있을지 모르는 선녀들의 흔적을 기억하며, 그녀들이 우리의 모신(母神)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달과 호랑이와 우물의 선녀-여신들을 되새기며 '잊혀진 족보-여성신화'의 장을 덮는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

IMF로 고개 숙여진 아버지의 기를 세우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가지 캠페인화 되었지만, 아버지만큼 혹은 아버지보다 가슴앓이를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선 사회는 언제나 침묵을 지켰지요. 모성의 신화 속에 박제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투박투박 현실 속에서 싸우기도 하면서 때로 미워하기도 하면서 알게모르게 끈끈한 정을 나눠갖게 되는, 바로 삶 속에서 부대끼는 딸들의 어머니. 나와 어머니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팔팔끼고 색 옷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엄마와 함께 목욕탕에 간다!

사춘기 이후 목욕탕에 가는 것이 왠지 꺼려졌나요? 가끔 엄마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목은 때들을 서로서로 밀어보세요. 엄마가 "아, 너 의외로 배 많이 나왔다..." 해도 충격받지 말고 껄껄 시원하게 웃어보구요.

엄마에게 데이트 신청

손잡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고... 음악회 표 같은 것 짚싸게 구매 놓았다가 함께 가지고 즐라보고... 돌아오는 길이 좀 더 따스하게 느껴질 꺼예요.

엄마와 함께 노래한다.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들을 곡곡 머릿속에 쟁겨두었다가 어느 평범한 날 그 음반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 음반을 틀어놓고 함께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도 즐거울 꺼예요.

엄마만의 무언기를 함께 만든다.

직장을 다니건 다니지 않건 늘 가족들의 뒤통자리를 맡아 하느라 엄마는 종종 '엄마만의' 물건을 창고에 여유를 놓쳐버린답니다. 엄마의 노트나 엄마의 찻잔을 함께 장만하고 골라보는 것도 좋을 꺼예요. 의자 하나라도 딱 정해 '엄마의 자리'로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모녀관계를 나타내는 이미지들을 여기저기에

이건 조금 어려운 작업일꺼예요. 어머니를 표현하는 장식품, 그림들은 대부분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지요. 그래도 열심히 어머니와 딸을 나타낸 이미지들을 찾아 여기저기에 놓아둡시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사진을 걸어두는 것도 좋겠지요.



엄마의 젊은 시절 꿈, ||||| 혹은 미래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

[1999년 7월 14일, '3차성정' 편집회의를 막 끝낸 여우'에서 오간 이야기]

발단은 C가 꺼낸 책이었다. '엄마와 나' 기획팀 때문인지 C가 최근에 구입한 '제3의 성'이라는 중년 여성에 대한 책.

- 이 도표들 좀 봐. 중년 여성들의 꿈과 현재에 대한 도표인데.....조금 가슴 아프지 않니? 젊었을 때 이렇게 다양한 꿈들을 가졌었는데 지금의 직업분포도는 가정주부에 모여 있잖아.
- 음..이상한 기분이 드는걸. 우리 어머니는 젊었을 때 꿈이 뭐였는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내가 물어본 적도 없어.
- 어머니가 젊었을 때, 라는 생각부터 생소하지 않아? 어머니가 스무살적에, 글썄, 모르겠지만, 이 문구가 무척 인상깊게 느껴져. 나와 같은 나이에 있던 어머니는...어떤 미래를 생각했을까? 지금 나와 같은 느낌이었을까?
- 아, 나, 죄책감 느껴져....
- 응?
- 나, 엄마의 미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거든.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나마 자주 생각하곤 했는데...난, 무의식중에 엄마는 미래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 그러고보니 나도 참 무관심한 딸이었다. 엄마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한번도 엄마의 과거와 미래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 엄마가 바라는 미래에 대해 한번쯤 물을 수도 있었는데.
-
-
- 애, 우리 이것 3차성정에 넣으면 어떨까? 엄마와 미래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꼭지 넣자.
- 이미 팀이 다 정해지고 페이지까지 대강 정해졌는데.. 가능할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놓아야 할 지 감도 안 오는걸.
- 토막글 형식도 괜찮지 않겠니? 지금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써도 좋을 것 같은데.
- 그럴까?

엄마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엄마를 작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노동하시는 고이말로 '엄마'로서의 '엄마'만 본 것은 아닌지. 여성으로서의 엄마의 과거와 미래를 독후에내어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폐경이 늦게 왔으면 좋겠나요? |||||

갱년기 우울증을 많이들 이야기하지요.

폐경기의 중년 여성에 대한 갖가지 우울증들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하지만 반대로 폐경기/ 갱년기를 맞아 다시 활기를 찾는 여자들도 많다는 것은 왜 알려지지 않는 걸까요?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나는 이제 여자로서 쓸모없어, 라는 공허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련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중년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어머니들이 많답니다.

또한, 갱년기 우울증은 생물학적인 이유이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가정주부들이 상실감에 젖기 쉬운 기간이기에 발생하는 이유가 훨씬 많답니다.

"갱년기니까 그래." 라고 어머니의 한숨과 짜증을 넘기시지 말고 주의깊게 바라보세요. 과연 당연히 찾아오는 의학적인 현상일까요? 그게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가 어머니에게 지우는 짐, 중년 여성에 대해 보내는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여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 아닐까요.

[임신 경험 새롭게 읽기]

|||한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태아와 산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융합(임마와 태아의 삶과 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섞여 있다)? 침범(임마에게서 모든 영양기를 빼앗아 가는 이물체로서의 태아)? 그 둘 중 어느 하나일까요?

어머니와 태아는 놀랄만큼 평화로운 공존을 유지합니다. 두 자아는 상호 유지되며 각각의 개별성을 인식하죠. 그 개별성의 인식으로, 즉 모체에게 태아가 이물체로 인식되기에 태반은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몸에 대한 관용이 이루어지구요. (이식 수술시 다른 세포체가 개별체로 인식되면 즉각 거부반응이 오는것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어머니와 태아는 태반을 가운데 두고 상대적인 자율성을 유지합니다. 태반은 두 몸 사이의 생체교환을 조정하는 것이죠. 단순히 영양물은 어머니에서 태아에게, 배출물은 반대 방향으로의 교환이 아니라, 어머니의 몸의 신진대사 역시 변화시키는 것이죠. 태아와 어머니 모두를 위해 모체의 물질을 변형하고 저장하고 재분배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는 형성됩니다. 태아는 어머니를 탈진시키거나 단순히 영양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개별성의 인정 속에 서로에 대한 관용, 상대적인 자율성의 세계로서의 모성의 질서. 어머니와 아이들 간의 '떨어야 댈 수 없는' 융합의 관계나 어머니를 희생시켜 자라는 아이의 상보다는 훨씬 매력적이지요?

가사노동에 대하여

사람

늦은 밤, 어머니의 일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이고도 끝나지 않은
빨래, 설거지, 청소 등의 집안일을
식구들이 잠든 시간까지 어머니 혼자서만 계속하고 있다.
내일도 별로 다르지 않게 어머니의 일상은 반복될 것이다.

"내가 해온 일이 쓸모 없는 일이란 생각이 들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외롭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것 같아."

아주 가끔, 어머니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하신다. 어머니는 자신의 존엄성, 자아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 하신다. 우리사회에서 가정주부의 일이란 지위도 낮고, 안정성도 없으며, 힘도 없는 그런 직업이다. 아니 가정주부의 일에 직업이라는 개념을 붙이는 것도 드문 일이다. 가정주부의 일에 대한 가치는 정당하게 평가된 적이 없다.

"엄마는 가정주부의 일을 선택한 거야?"

어머니에게 이런 잔인한 질문을 해놓고 후회한 적이 있다. 어머니 세대의 여성에게 있어서 자율적 선택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몇 개 되지 않는 선택 모델 (어쩌면 결혼이 유일한 모델이었을지도 모른다)중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선택을 강요당한 어머니에게 '자율적 선택'이란 말은 어머니의 삶, 가치를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을 잘 알면서도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어머니의 삶이 분노스럽고 좌절스러워서이기도 하지만 '나의 삶은 그리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머니 때와는 시대가 다르다. 결혼을 안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어머니와 같은 여성인 나에게 진정한 선택지가 주어질까' 라는 나의 불안감 때문이기도 했다. 성별분업이태워로기는 다양한 형태의 억압으로 개인에게 작동한다. 여성은 자발적인 피부양자이고 남성은 아내와 자식을 먹여살릴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이 사회의 지배적 생각이다. 이 속에서 운 좋은 소수가 되고자 하는 환상은, 환상일 뿐이다.

"너는 왜 내가 하는 일을 '노동' 이라고 말하니? 내가 하는 일은 돈으로 계산 할 수 없는 일이야."

사람들은 가정주부의 공로가 값으로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귀중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주부는 자신의 일에 대한 급여도,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주부들이 귀중한 사회성원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집단이 누리는 혜택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 가정주부들은 사회를 받쳐주는 주춧돌이라는 생각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실제로 그들은 가정에 대한 이중 기준의 희생자들이다.¹⁾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기만적 찬사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

"엄마는 다른 식구들이 조금씩 가사일을 돕는 것, 엄마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을 가끔 하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내가 엄마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어머니는 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매겨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감정적 부분 이외의 것을 말 씀하시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이라고 불리고 그 가치를 평가받는 것은 금전적 보수가 있는 노동이다.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해도, 그 일의 양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돈을 받지 않는 일이라면 돈이 지불되는 일보다 사회적으로 가치가 적은 일로 여겨지는 것을 볼 때, 유급이나 무급이냐는 그 일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재생산 노동에 대한 비용을 가정, 가정주부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유포시키고, 가사노동에 대한 찬사로 근본적 문제를 은폐시키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존속 가능하게 한다. 하기에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의 가치평가에 문제제기 하는 것은 성차별주의 뿐 아니라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의 근본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 주부로서의 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난 엄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니."

어머니에게 내가 하는 말들이, 소위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제기의 말들이 가정주부 자체에 대한 거부와 반대의 의미로 들렸나 보다. 많은 여성, 어머니들에게 여성운동가들이 하는 말은 주부업의 폐기라는 의미로 다가올지 모른다. 하지만 가사노동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가정주부가 여성에게 허용되는 유일한 역할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수의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 하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말하려 하는 것이다.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닌 억압받는 자들의 권리를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공정한 분배를 통한 주부업의 재황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를 포함한 여성운동가들이 가정주부의 이름으로 가사노동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주부들 스스로 문제제기 하는 흐름이 작게나마 드러나고 있지만 나의 어머니 세대에게 그것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하지만 나의 삶이 어머니의 삶과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점에서 나는 어머니의 일, 가사노동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어머니를 이해 할 수 있었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읽을 수 있었다. 여전히 갑갑하지만 바꾸고 싶다. 그리고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엄마처럼 살지 않기 - 그 어렵고 험난한 길

에로

'엄마처럼 살지 않겠어요'는 책 광고 문구로 인용이 될 정도로 모든 딸들이 통과시켜야 할 말이다. 나 역시 '엄마, 왜 그렇게 살아?', '난 엄마같이 살지는 않을꺼야'라는 식의 말을 종종 뱉어왔었다.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지만 좀 잊혀질만 하면 행해지는 아빠의 엄마에 대한 구타. 때면 그렇게 구타를 당하는 걸 못내 분해하고 원통해 하면서도, 차리리 이혼하라는 딸에게 '그래도 다들 그렇게 산다, 가끔 이러는 것 때면 너희 아빠 같은 사람도 없다'라며 오히려 아빠를 두둔하는 엄마.

50이 넘는 연세에도 제빵학원부터 영어학원, 컴퓨터학원까지 다닐 정도로 (엄마의 표현대로) 왕성한 도전욕과 개혁심을 갖고 있지만 전업주부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다 결국 '난 우울증에 빠졌어.'라고 말하는 엄마.

'이젠 엄마도 엄마의 삶을 즐겨.'라고 가볍게 말하고, 집에서는 얼굴도 마주보기 힘든 장성한 자식들에게 이젠 화도 내기 힘든 엄마.

엄마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답답해지는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화가 났다.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했지만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나'라는 생각이 불췌불췌 치밀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만큼 쉽게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꺼야'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누군 그 소리 안 하고 큰 줄 아나, 너도 한 번 살아봐라'고 했던 엄마의 쓸쓸한 대꾸가 귓가를 계속 맴돈다.

단순히 우리 엄마(그리고 딸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모든 엄마들)가 못났기 때문에, 바보같이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많은 딸들이 그렇게 엄마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 왜 때 세대의 딸들은 이전의 딸들이 이미 했던 말들을 영무새처럼 반복하며 엄마가 되는 것일까, 그것도 그렇게 한 몇몇 딸들을....

전체 기혼녀 중 70%가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는 사회 속에서 단순히 내가 남편한테 잘한다고 혹은 남편이 무지 착하다고 맞고 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환상일 뿐이다. 그리고 어느 주부가 명절, (시댁) 제사 등을 비롯 한 가사노동을 하면서 '나는 가정부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똑같이 분담하지 않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어요'라고 당당히 항변할 것인가, 또한 강력한 모성 신화 속에서 아이 기르는 것이 생각만큼 보람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

"단순히 우리 엄마(그리고 딸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 모든 엄마들)가 못났기 때문에, 바보같이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많은 딸들이 그렇게 엄마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

주 1) 안드레 - 가정주부 중에서

고 남편의 대를 이어 자식을 기르는 일이라면, 여성이 직장을 때려치는 것쯤은 당연하게 여기는(오히려 장려되는) 사회이다. 더군다나 이를 비롯한 많은 것들이 부당한 것이라고 여자가 이혼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다가 자신 명의의 변변한 재산 하나 없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여자가 참아야 한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살아야 된다' 등등의 말들에 세뇌되다시피한 엄마(여성)들로서는 말이다.

내가 엄마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를 비롯한 많은 딸들이 엄마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만 할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단순히 '엄마처럼 살지 않겠어!' 라고 외치는 것이나 내가 잘나면 된다는 생각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내 앞에 쌓여있다. 모든 여자들이 전 세대의 엄마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게 하는 사회구조 자체에 대해 메시지를 들어 대야 하는 것이다.

우선,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그리고 엄마같이 살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자가 호적을 파악하는 혼인신고 제도부터 바꾸고, 남자가 우선 순위로 대를 잇게 하는 호주제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를 출가외인·시집 귀신 정도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시집에 충실해야 하는, 남성이 처가에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사고하는 문화와 관습을 때려잡아야 한다. 날이 갈수록 가사노동 분담에 대만해지는 남편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서 나의 사회적 노동권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설파하고, 또한 나의 노동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이 철저히 행해질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도 고군분투 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나에게겐 엄마로서의 인생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한다. 주부한테 턱없이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 보험제도, 상속제도 등등도 바꾸도록 움직여야 한다. 내가 주부로서 엄마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엄청난 일들을 해야 한다. 아마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내 삶 전체를 바쳐야 할 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 본다. 이것은 가시적으로 가장 쉽고 분명하게 보이는 엄마처럼 살지 않는 방법이다.

하지만 독신으로서의 삶 역시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우선, 가족과 친구들, 사회적인 압력으로 내가 독신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어렵게 독신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독신여성-일명 노처녀-에게 가해지는 온갖 루머와 편견, 그리고 제도상의 불이익 등을 헤쳐나가는 것 역시 만만치 않다.

엄마처럼 살지 않기 - 그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작은 움직임으로 언젠가는 모든 여성을 반복해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게 하는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아마 그것은 엄마들이 여성들이 바보같이 때문에 그런 삶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않기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딸들에게서 '엄마같이 살지 않을꺼야' 라는 말을 들으며 사셔야만 했던 엄마의 한숨을 그 눈물을 이해하는 것일 것이다.

함께하는우리

감 (지현 인문 99)
골라 (미웅 법학96)
노을 (영희 사회97)
달 (필주 영교99)
데쓰 (수림 경영98)
별나 (현실 교공96)
사람 (지원 서양화97)
마녀 (유라 의예99)
블랙 (태연 철학96)
비 (윤미 보교98)
아이 (보미 사회97)
에로 (원영 사학96)
에코 (혜숙 법학97)
오이 (보미 컴전99)
큐라 (지연 국문96)
탕이 (설아 법학99)
환 (정인 경영99)

함께해준 사람들

꺼리, 당근, 도올, 띠기, 마니, 블루
번개, 라기, 라니, 레바, 사과, 사리
소다, 엠, 우주, 윈더, 이지, 이티, 천동
체크, 초원, 카람, 포니, 하람, 물음

늘 곁에 있는 사람들

은초, 짜투리, 여울엄마, 모기
뽕, 쌀, 엑스, 큰님

편집후기

황이 그려준 삽화가 편집에 큰 도움이 되었군...
 편집? 애림이 마장가슴 한방만 찔르면 더 힘이 들었는데...
 어림은 정말 개악하다...
 람 집 도배하니 너무 좋다. 내 집에도 람집에서 편집하자.
 - 오이 -

쿨러쿨러
 음... 편집팀들 모두들 수고했어요!
 다음에는 편집기술 배워서 우리가 직접하고 돈 줄이자.
 그리고 3차정장 발간을 위한 하루주점... 람은 실력합니다..
 그러나..
 여우일들의 '여랑'과 주점에 오는 친구들의 '주머니'를 말기해..
 (근데 내 친구들은 어디에?)
 - 람 -

여우방에 오면 알레나 배가 고프다.
 팔이 길어서 모두를 한방에 꽂아주고 싶다..
 - 껌득기 편집팀황 -

편집팀 오이, 람, 멋진 삽화를 그리와, 그리고 고민하여 원고 쓴 여우일들 모두 화이팅!
 여우일 하나, 하나가 너에게보고 소중한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글!!!
 (하지만... 자꾸 늑문이라 금박해서 더러웠다. IT)
 - 쿨 -

Living Record Shop

리빙음악사

이대본점 334-0552



Compact DISK/Digital Video Disk/TAPE

with us 독소전문점

위더스

지하 2층 위더스 363-2880
 2층 아파도네
 3,4층 자교대상점
 5층 파썸
 6층 파가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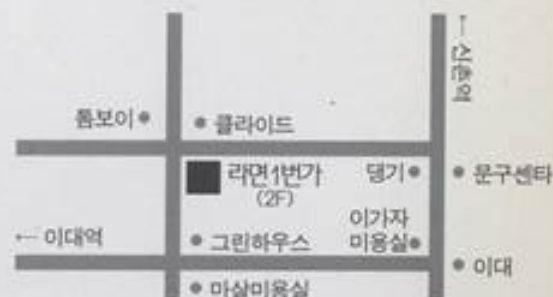
~~~~~단체모임 환영~~~~~



레스토랑식 라면전문점

## 라면 1번가

362-2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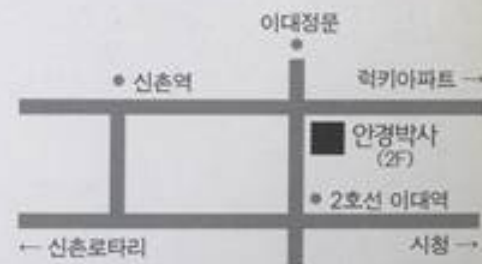


친/고/의/맛/과/서/비/스/를/고/객/에/게-

Ankyung Baksa

## 안경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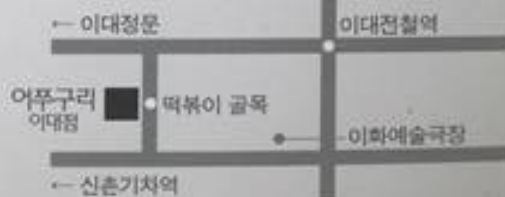
313-8680~1



정첨단광학렌즈 'MEGALITH' 안경박사에 있습니다

## 어쭈구리

이대점 363-4473



값싼 안주, 맛있는 칵테일 소주